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천지왕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허 영 미

2007년 8월

# 「천지왕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운 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초등국어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허 영 미

2007년 8월

허 영 미 의

교육학석사(초등국어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

심 사 위 원 인

---

심 사 위 원 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 차 례

논문 요약 .....	iv
<b>I. 서론</b>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2
3. 연구 자료 및 방법 .....	8
<b>II. 전승 양상</b> .....	10
1. 자료의 성격 .....	10
가. 「초감제」의 성격 .....	10
나. 「베포도업침」의 성격 .....	11
다. 「천지왕본풀이」의 성격 .....	12
2. 자료의 실상 .....	13
3. 유형 .....	43
가. 기본형 .....	44
나. 변이형 I .....	44
다. 변이형 II .....	45
라. 변이형 III .....	45
<b>III. 구조와 의미</b> .....	48
1. 순차 구조와 의미 .....	48
2. 순환 구조와 의미 .....	64

가.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	64
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 .....	67
<b>IV. 전승집단의 의식 .....</b>	<b>71</b>
1.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사고 .....	71
2. 현실 비판과 구원의 기대 .....	75
3. 타인에 대한 배려·욕심에 대한 경계 .....	76
4. 인간 중심적 사고 .....	77
<b>V. 교육적 활용 .....</b>	<b>80</b>
1. 교육적 성격과 의의 .....	80
2. 교재화 방안 .....	85
가 개작 자료 검토 .....	85
나. 읽기 자료화 .....	89
3. 읽기 자료의 교수-학습 활용 .....	96
가. 감수 .....	96
나. 반응 .....	97
다. 가치화 .....	97
라. 조직화 .....	99
마. 성격화 .....	100
4. 지도의 실제 .....	101
<b>VI. 결론 .....</b>	<b>106</b>
<b>참고문헌 .....</b>	<b>109</b>

ABSTRACT .....	116
----------------	-----

## 표 차례

[표-1] 「천지왕본풀이」의 채록 현황 .....	15
[표-2] 각 본에서 생성된 별자리 이름 .....	20
[표-3] A단락의 화소 존재 유무 .....	23
[표-4]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내용 .....	31
[표-5] 수수께끼 내기의 변이 내용 .....	37
[표-6] 자료의 서사단락 유무 비교 .....	43
[표-7] 기본형 .....	44
[표-8] 반응 중심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	102

## 그림 차례

[그림-1] 천지왕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	64
[그림-2] 대별왕과 소별왕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	66
[그림-3] 대별왕과 소별왕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 .....	68

## 논 문 요 약

# 「천지왕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허 영 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운 식)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의 제차인 「초감제」의 소제차 「베포도업침」과 함께 불리는 본풀이로 혼합되었던 천지가 분리되고, 일월성신이 생겨나는 개벽의 과정과 천지왕이 지상국 부인과 결연하여 낳은 대별왕·소별왕이 경쟁을 통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는 과정을 노래한 서사무가이다.

이 연구는 「천지왕본풀이」의 채록본 8편과 필사본 1편을 대상으로 이 무가의 전승 양상, 구조적 특징과 의미, 전승집단의 의식, 교육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천지왕본풀이」의 자료 분석을 통한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순차 구조에 따라 전 전 단락을 포괄하여 10단락으로 나누어지며, 단락의 첨가, 탈락, 의미의 변질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형」은 9편 중 3편으로 구조가 안정적이다. 여기에 <부친 탐색담>, <수명장자 징치담>이 탈락되면 「변이형 I」으로 보고, <대별왕의 이승 정리담>이 첨가되면 「변이형 II」으로 본다. 서사단락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별왕이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채록본



을 신화의 의미가 변질된 것으로 파악하여 「변이형Ⅲ」로 보았다.

대별왕 소별왕의 신직 획득을 중심으로 본 「천지왕본풀이」는 천지개벽—천지왕 결연—천지왕 업적—부친 탐색—공적—경쟁—신직 획득’의 순차 구조를 가진다. 혼합되었던 천지가 개벽되고 만물이 생겨나는 천지개벽담, 혼란한 세상을 정리해 줄 이세(二世)를 얻기 위한 천지왕 결연담, 부정의 존재인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천지왕 업적담, 부친 탐색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내면에 잠재된 신성을 확인한다. 복수(複數)로 존재하는 해와 달을 커다란 활로 조정하는 공적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형제가 수수께끼 내기와 꽃 피우기 내기를 하는 경쟁담, 속임수로 소별왕은 이승의 신이 되고 대별왕은 저승의 신이 되는 신직 획득담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순환 구조는 지상계와 천상계의 순환, 시련과 극복의 순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상계와 천상계의 순환은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이 ‘천상계→지상계→천상계’로 순환하는데, 대별왕과 소별왕이 신이(神異)한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각각 저승과 이승의 신으로 좌정하게 되기까지는 ‘시련’과 ‘극복’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미분적 상상과 순환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인의 존재 근원에 대한 원본 사고에 의한 것이다.

이 무가에는 전승집단의 의식이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본토의 창세 신화를 향유한 집단들은 이승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 서사무가를 향유한 집단들은 공간을 이승과 저승으로 분리하여 그 질서가 구현되는 과정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 신화는 곳거리에서 불리는 서사무가이므로 인간중심적 사고를 읽을 수 있었다. 전승집단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곳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였다. 수명장자와 소별왕의 행동을 보면서 욕심을 경계하고 남을 배려하라는 전승집단의 소박한 도덕률을 살필 수 있었다.

「천지왕본풀이」는 이 세상의 시원(始原)을 알려주는 서사무가로 지금도 곳거리에서 불리고 있어 이미 소멸되어 버린 본토의 창세신화와 달리 ‘살아있는 신

화'로 그 가치가 크다. 「천지왕본풀이」는 앞에서 살펴본 전승집단의 의식과 함께 교육적으로 수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학적인 재미 외에도 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학의 효용성도 갖추고 있는 귀중한 문학작품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초등국어 교육)학위 논문임.

# I. 서론

「천지왕본풀이」는 혼합된 천지가 분리되고, 일월성신이 생성되는 모습과 천지왕이 지상국 부인과 결연하여 낳은 대별왕·소별왕이 경쟁을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는 과정을 노래한 내력담(來歷談)이다. 제주도 큰굿의 서두라 할 수 있는 「초감제」 제차에서 소제차 「베포도업침」과 함께 불린다. 우주의 창생원리가 담긴 이 신화는 한국의 창세 신화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곳곳에서 불리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장에서는 서사무가 작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연구의 자료와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여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 1. 연구의 목적

제주도는 1만 8천의 신이 사는 ‘신들의 고향’으로 신화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굿들을 행해지고 있으며 제주도 민들은 신에게 기원(祈願)하는 것을 본풀이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 본풀이는 각 영역에 대한 해당신의 직능과 함께 세상의 기원(起源), 인간질서에 대한 기원(起源), 생로병사의 기원(起源), 문화의 기원(起源)을 담고 있어 ‘신화’로서의 가치가 크다.

「천지왕본풀이」는 우리 민족의 창세 간념이 내포된 기원(起源) 신화로 우주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흥미와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외국의 신화를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은 몇 편에

불과한 건국신화만 알고 있을 뿐 다양한 삶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며 수적으로 많은 무속신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문화적 열등감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는 ‘신화’에서 찾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비 전승되고 있는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의 채록본 8편과 필사본 1편의 전승 양상을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의미,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아가 「천지왕본풀이」의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여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우리나라 신화가 어린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 검토는 「천지왕본풀이」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창세신화의 한 갈래로 보고 본토에서 전승되는 「창세가」, 「생긋」, 「시루말」 등과 함께 지리적, 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한 논의와 무가를 문학 교육의 일환으로 적용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임석재는 그동안 몇 편밖에 채록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창세신화를 더 발굴하여 학계에 발표하고, 채록된 창세신화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창세신화가 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정적인 세계관을 지녔으며 현실에 대한 관조적 자세, 투쟁과 갈등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적 심성을 논하였다.<sup>1)</sup> 하지만 그의 결론은 민족적 심성론으로 귀착될 위험을 안고 있다.

서대석은 전국에서 채록된 천지개벽 신화가 인세차지 경쟁담이 핵심이 되기

---

1) 임석재,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비교민속학 7집(경북 : 비교민속학회, 1991).

때문에 창세기조신화라 정의하고 창세기조신화의 의미와 변이를 천지개벽, 인간의 창조, 일월의 조정, 주도권의 경쟁, 시조의 출생 과정 등 다섯 가지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와 본토의 「시루말」은 제석본풀이계의 무가와 비교하여 「천지왕본풀이」가 「제석본풀이」로 변모되었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제석본풀이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혔다.<sup>2)</sup>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신화의 전승체계를 밝히려고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용준은 제주도 신화를 활발히 연구하였는데, 그 중에서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분석과 그에 나타난 세계관의 문제 등 전체적인 면을 다루었다. 특히 전파론적 입장에서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 중에서 사양(射陽)신화와 천지분리신화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민족 신화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사양신화는 남중국연안, 대만, 동남아 계통과 그 맥이 닿아있고, 천지분리신화는 남중국, 대만과 그 맥이 닿아있다 하여 「천지왕본풀이」를 남방계통의 신화로 보았다.<sup>3)</sup> 이 연구는 「천지왕본풀이」의 계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사양신화와, 천지분리신화를 택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수자는 제주도 큰곳의 구조와 성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천지왕본풀이」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sup>4)</sup>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천지왕본풀이」가 불리는 제의를 밝히고, 세부모티프에 주목하여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현은 「천지왕본풀이」를 지라르의 이론으로 해석하고 있다.<sup>5)</sup> 신화에 숨겨진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으나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허춘은 문화영웅과 위계사(僞計師)의 이중성과 양가치성, 그리고 이원적 대

2) 서대석, “창세기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한국신화의 연구(서울 : 집문당, 2001).

3)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서울 : 집문당, 1991).

4)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5) 김현, “지라르의 눈으로 제주도 개벽신화읽기,”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서울 : 나남, 1989).

립의 조정자로서의 성격 등의 특성을 세계의 여러 나라의 신화를 예로 들면서 개괄하고 우리나라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의 주인공들을 문화영웅과 위계사로 나누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위계(僞計)로 내기에 이긴 소별왕을 문화영웅—위계사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한 점이 흥미롭다.<sup>6)</sup> 그의 연구에서는 소별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김현선은 본토와 제주도 창세신화가 구조적으로 다름을 인식하고 각각의 신화가 지니는 핵심적인 신화소를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sup>7)</sup> 특히, 「천지왕본풀이」의 각 채록본을 종합하여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지영은 창세신화, 건국신화, 당신화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신화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창세신화를 창세가형, 천지왕본풀이형, 베포-천지왕본풀이형, 생긋형으로 나누었는데 「천지왕본풀이」가 채석본풀이로 변모된다는 서대석의 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베포-천지왕본풀이형은 천지창조라는 신화소에 주목하여 복합본으로 파악하였다.<sup>8)</sup> 하지만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분류한 점이 아쉽다.

이재열은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로 다양하게 채록된 「천지왕본풀이」를 ‘천지왕무가’라고 명명하여, 제주도 창세신화의 특징과 구조를 살폈다.<sup>9)</sup> 지금껏 본토의 창세신화와 함께 연구되어 오던 「천지왕본풀이」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천지왕본풀이」를 창조신화로 봄으로써, 천지왕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남연은 화소나 신화소를 분석의 단위로 삼았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더

6) 허춘, “제주도 무속신화의 문화영웅고,” 현용준박사화갑기념 제주도언어민속논총(제주 : 제주문화, 1992).

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서울: 길벗, 1994).

8)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9) 이재열, “창세신화 천지왕무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큰 단위인 유형담으로 창세신화를 분석하였다. 「천지왕본풀이」의 <장자징치담>과 <천지결연담>을 중심으로 두 유형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유형담의 전승과 변이양상을 파악하여 신화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로 나누어 서술하였다.<sup>10)</sup> 이 연구는 창세신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허정식은 「창세가」와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와 문화적 특징을 규명하였다.<sup>11)</sup> 그러나 각 1편의 채록본만을 연구하여 여러 각편들을 통한 구조와 의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의 폭이 매우 좁다.

임재해는 베포도업침에 나타난 개벽의 시간을 다른 풍속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민족의 시간관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더불어 개벽의 과정을 음양론에 입각, 천지분리 후 모습을 삼재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닌 프랙탈 이론의 선형적 사유체계를 밝혔다.<sup>12)</sup> 이는 그동안 신화소나 의미 중심으로 연구되던 창세신화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념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홍어진은 신화소를 바탕으로 창세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창세신화를 창세가형, 베포도업침형, 천지왕본풀이형으로 분류하였다.<sup>13)</sup> 그가 분류한 유형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본토의 「시루말」을 구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승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천지왕본풀이형으로 분류하였다.

신재은은 교술무가에 속하는 창세신화를 교술형 창세신화, 서사무가에 속하는 창세신화를 서사형 창세신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교술형 창세신화를 천지

10) 김남연, “한국창세신화와 유형담의 전승과 변이—장자징치담과 천지결연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1) 허정식, “한국의 창세신화 연구—<창세가>와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2) 임재해, 한국 민속학과 현실인식(서울 : 집문당, 1997).

13) 홍어진, “한국 창세신화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개벽형, 역사 기술형으로 나누고 서사형 창세신화를 창세형, 인세차지형으로 나누어 전승집단의 우주관과 현실인식을 연구하였다.<sup>14)</sup> 이 연구는 그 동안 서사 무가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창세신화 연구에 교술무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의 분류에 따르면 「천지왕본풀이」가 천지개벽형, 인세차지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천지왕본풀이」가 내용상 나누어지기 하나, 그 내용을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천지왕본풀이」의 구조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김정경은 기호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의 창세신화는 서사의 진행 순서에 따라 위계의 파괴 단계와 위계의 부재 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밝혔다.<sup>15)</sup> 이는 지금까지 신화소, 단락, 유형담으로만 연구되었던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승집단의 의식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꽃 피우기 내기와 속임수 사용이라는 유형담으로만 접근하여 부분적인 의식만 파악했을 뿐이다.

박종성은 북부 지역의 「창세가」와 중부 지역의 「시루말」, 남부 지역의 「천지왕본풀이」를 각 지역의 건국시조신화인 「주몽신화」, 「비류·온조 신화」, 「삼성신화」와 비교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변천과정을 밝혔다. 특히 「천지왕본풀이」를 부여·고구려 계통의 세력이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생긴 외래·입도한 서사시로 파악하였다.<sup>16)</sup> 이는 현용준이 제주도 창세신화를 천지분리신화와 사양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민족의 창세신화와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남방계통으로 보았던 것과 상이한 관점이라 주목이 된다. 이 연구는 「천지왕본풀이」의 근원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창윤은 한국의 창세신화를 북부형과 제주형으로 나누어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북부형은 창세가와 「제석본풀이」가 내용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제

14) 신재은, “창세신화에 나타난 우주론의 체계와 현실인식,”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5) 김정경, “한국 창세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6)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의 의미와 시대적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주형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내용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밝히고 각 지역적 창세신화를 우주적 질서 차원과 인세적 질서 차원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다.<sup>17)</sup> 이 연구는 지리적 유형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관계를 밝혔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오정미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우리의 무속신화가 문학적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을 살피고 무속신화를 동화책으로 출판한 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창세신화는 인식적인 면에서 그리스·로마 신화와 비교하며 바른 구도를 제시하였으며, 바리공주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 세경본풀이는 캐릭터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다.<sup>18)</sup> 그러나 창세신화부분에서는 「창세가」, 「생긔」, 「천지왕본풀이」이 각각의 창세신화의 개별적 특징이 부각되지 않고 혼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아쉽다.

김난주는 우리나라 신화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과 모티프가 서사구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융학과의 분석심리학적 견해를 수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sup>19)</sup> 하지만 창세신화를 다룬 부분에서 본토와 제주 각각 한편의 채록본만을 택해 연구하여 변이가 심한 「천지왕본풀이」의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은정은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인 면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천지왕본풀이」와 일본의 창세신화의 신화소를 추출하여 비교하고, 공통 구조를 파악하였다.<sup>20)</sup>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창세신화가 공통점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17) 이창윤, “북부형과 제주형 창세신화의 지역적 특성”,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서울 : 집문당, 2000).

18) 오정미, “무속신화의 재창조 방안 연구—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9)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0) 김은정, “한·일 창세신화 연구—제주도 지역 무가 신화와 일본 문헌 신화와의 비교·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진봉은 창세신화를 북부형과 제주형으로 나누어 공간관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북부형은 이계 및 타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선과 악의 개념만 구분되어 있지만 제주형은 공간 구분이 명확하다고 하였다.<sup>21)</sup> 이 연구는 그 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공간관에 대해 연구를 했다는 것이 의의라 할 수 있다.

박희순은 제주 설화를 본격적인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재료를 제주지역의 설화로 대체, 단원을 재구성하여 교육연극방법을 통한 다양한 수업활동을 제시하였다.<sup>22)</sup> 특히 「천지왕본풀이」를 읽기용, 말하기·듣기용 텍스트로 개작하여 수업에 활용하였으나 각 설화에 대한 구조와 의미 파악에는 소홀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천지왕본풀이」의 특성 및 독자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본토의 창세신화와 함께 묶어 특정 명칭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접근이 미비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가 특정 자료나 채록본만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천지왕본풀이」의 독자성을 염두에 두어 구비 전승된 자료를 모두 망라하여 구체적,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교육적 활용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채록본 9편을 대상으로 위의 선행 연구 결과를 수용·검토·확장하여 논의를 심화해 나가고, 이 무가의 전승 양상과 의미,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펴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 3. 연구 자료 및 방법

21) 최진봉, “창세신화의 공간 연구,” 숭실어문 19집(서울 : 숭실어문학회, 2003).

22) 박희순,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 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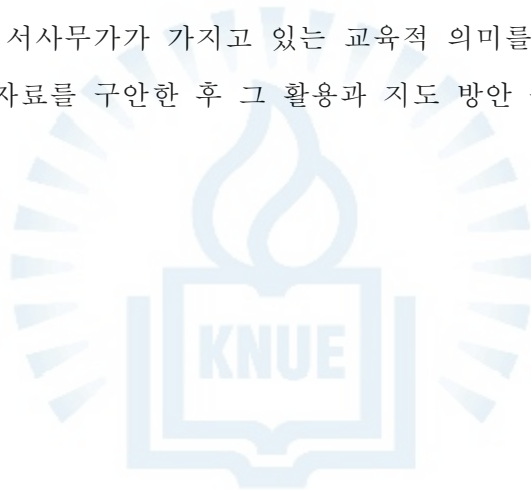
이 연구는 「천지왕본풀이」 자료 9편을 대상으로 삼아 민속학적 방법과 문예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겠다.

제Ⅱ장에서는 채록 자료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와 각 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제Ⅲ장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순차 구조를 중심으로 이 서사무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이 서사무가에 나타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살펴 이 서사무가에 투영된 전승집단의 의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이 서사무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추출해보고, 초등학생에 적합한 읽기 자료를 구안한 후 그 활용과 지도 방안 등을 제시해 보겠다.



## II. 전승 양상

「천지왕본풀이」 자료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 먼저 자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의 전개와 각 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래 모습에 보다 가까운 「천지왕본풀이」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형과 변이형을 살피고 어떤 이유에 의해 변이되었는지 추정토록 하겠다.

### 1. 자료의 성격

지금까지 「천지왕본풀이」는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라는 명칭으로 채록되어 왔다. 「천지왕본풀이」가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천지왕본풀이」가 「초감제」라는 제차에서 「베포도업침」이라는 소제차와 함께 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별개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천지왕본풀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 가. 「초감제」의 성격

「초감제」는 곳에서 제일 처음에 행해지는 제차의 명칭을 말한다. 「초감제」는 비념(소규모의 祈願巫儀)에서부터 큰곳까지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든 무의에 공통으로 행해지는 기본적인 의례로 제향하는 모든 신들을 함께 불러 모아 대접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sup>23)</sup> 「초감제」는 세분화된 소제차를 가지고 있고, 그 순서에 따라 의식이 행해진다. 「초감제」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순서는 다음과

23)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서울 : 집문당, 1986), 324쪽.

같다.<sup>24)</sup>

- ① 베포도업침 - 신들에게 무의를 하는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인문사상의 발생을 노래하며 개벽신화도 불러짐.
- ② 날과 국 섬김 - 무의를 행하는 장소와 날짜를 신들에게 고함.
- ③ 연유 닦음 - 무의를 행하는 이유를 고하여 신들의 강림을 청함.
- ④ 군문 열림 - 신들이 지상에 내려 올 수 있게 신역의 문을 열어줌.
- ⑤ 새드림 - 신들이 강림하는 길의 모든 사(邪)를 쫓아냄.
- ⑥ 오리정 - 신들을 청해 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함.
- ⑦ 신청께 - 신들을 청해 들임.

「초감제」 명칭으로 채록된 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지가 혼합된 모습, 개벽이 되는 모습, 일월성신의 발생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산과 물이 생겨나는 과정, 인물의 탄생, 문화의 발생 모습 등 세상의 시원(始原)을 알려준다. 각 내용들은 서사적 구성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생겨나는 순서에 따라 화소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초감제」 안에서 불리는 소제차인 「베포도업침」 내용과 완전히 부합된다.

## 나. 「베포도업침」의 성격

「베포도업침」은 「초감제」의 제차 중에서 맨 처음 불리는 소제차의 이름이다. 「베포도업침」은 「초감제」에서 맞아들인 신에게 하강할 시간과 공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 태초의 공간과 시간이 마련된 기원적 사실부터 설명해나가기 시작한다.<sup>25)</sup> 「베포도업침」을 「초감제」의 맨 처음에 구연하여 곳 속에서 제의되는 시공간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의식(儀式)을 성적(聖的)인 공간으로 정화시켜 주는 의의를 갖고 있다.<sup>26)</sup> 「초감제」가 ‘나뉘고 시작’을 분명하게 구분

24) 여기에 제시된 순서와 내용은 현용준, 앞의 책, 262~63쪽을 참조하여 요약·정리하였다.

25)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99쪽.

26) 이수자, 앞의 논문, 103쪽~104쪽.

하는 곳의 서막이라 한다면<sup>27)</sup> 「베포도업침」에서부터 이런 기능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베포도업침」은 ‘베포[配布]를 친다’는 말과 ‘도업친다’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써 자연 사상의 발생을 ‘베포를 친다’고 하고 인문사상의 발생을 ‘도업친다’고 한다.<sup>28)</sup> 즉 혼합된 천지가 분리되어 개벽이 되고, 일월성신의 발생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산과 물이 생겨나는 과정은 ‘베포를 친다’라고 할 수 있다. 무가의 뒷부분에 나타난 여러 인물과 그에 따른 문화의 발생은 ‘도업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베포도업침」은 우주 만물의 창생 원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가 내포된 신화이다.

#### 다. 「천지왕본풀이」의 성격

「천지왕본풀이」는 「초감제」의 소재차인 「베포도업침」안에 불리는 본풀이이다. 「베포도업침」은 모든 무의(巫儀)에서 다 불리어지지만, 「천지왕본풀이」는 큰곳에서 불린다.<sup>29)</sup>

「베포도업침」은 제차의 명칭을 나타내며 자연 사상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천

27)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제주 :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18쪽.

28) 현용준, 위의 책, 263쪽.

29) 「베포도업침」은 간단히 「베포침」, 「도업침」으로 불리어질 때도 있다. 현재 「천지왕본풀이」는 큰곳과 불도맞이, 시왕맞이에서 불리어진다. 제주도의 곳은 규모에 따라 ‘비넘’, ‘죽은(작은)곳’, ‘큰곳’ 등으로 구분한다. ‘비넘’이란 기원이라는 말로서 심방 한 사람만이 단지 요령만을 흔들고 악기들의 사용이나 춤도 없이 한 시간 내외로 끝나는 간단한 의례를 말하고, ‘죽은곳’은 악기의 반주가 따르고 춤도 있으며, 그 곳의 목적에 따라는 특정 신격만을 모시는 개별의례로서 하루 안에 끝내는 소규모 곳을 말한다. ‘큰곳’은 3~4일 또는 그 이상도 걸리며, 모든 신격을 그 위계 순에 따라서 다 모시고, 모든 필요한 기원을 연속적으로 다 올리며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고, 춤도 추며 차례로 모시는 신에 따라서 제상 차림도 다양하다.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서울 : 역락, 2001), 62쪽

불도맞이는 산신(産神)을 청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도록 비는 의례이고, 시왕맞이는 사자공양제(死者供養祭)로서 사자의 왕생극락을 빌고,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의례이다. 불도맞이나 시왕맞이는 작은곳이라 할 수 있지만, 단독 의례로 행하기 보다는 큰곳의 형식을 취하여 그 일부분으로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용준, 위의 책, 234~245쪽.

지왕본풀이」는 무가로서의 명칭을 나타내며 천지왕의 업적과 대별왕과 소별왕의 신적획득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형식과 내용상으로는 분리된 측면이 있다. 또한 「초감제」에서 「베포도업침」은 서서 구연하고 「천지왕본풀이」는 앉아서 구연하여 무당의 행동에 의해서 구분되기도 한다. 하지만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서로 별개의 무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소를 공유하고 내용이 혼용되어 있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커다란 활로 복수(複數)로 존재하는 해와 달을 쏘아서 정리하는 모습도 나온다. 또한 대별왕이 온갖 짐승과 풀이 말을 하고 귀신과 사람이 구분이 없는 태초의 혼란을 정리하는 모습이 이중으로 진술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현선은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의 후속적인 신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sup>30)</sup> 따라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분리되어 연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이 두 무가를 묶어 「천지왕본풀이」라고 명명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 자료의 실상

지금까지 조사된 「천지왕본풀이」는 모두 9편이다. 그 중 2편은 동일인<sup>31)</sup>이 구연 시기를 달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연자가 전과 다르게 구연한 부분이 있으므로 두 개의 본을 같이 살피기로 하겠다. 필사본 중 김두원의 『제주무가집』에 나타난 「천지왕본」 1편은 제외<sup>32)</sup>하고, 발간 연도가 분명치 않은 또 다른 필

30)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경북 : 비교민속학회, 2003), 14쪽.

31) <이중춘본>으로 표의 4, 5번에 해당한다. 5번의 채록년도가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채록한 문무병은 1997년으로 기억한다고 이야기한다.(2007년 6월 12일 오후 6:00 통화 내용)

32) 제작·수집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김두원의 필사본 「제주무가집」은 진성기 채록본을 베껴 쓴 것이나, 학계에서는 새로운 필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현용준은 1994년에 발간한 「풍속무음」 해제(解題)에서 김두원의 『제주 무가집』은 1960년에 공간된 진성기 편 『제주 무가집』의

사본 『풍속무음』의 「천지왕본」은 문정봉이라는 심방이 부른 것으로 추정<sup>33)</sup>되며 다른 본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천지왕본풀이」 채록본 8편과 필사본 1편은 다음과 같다.<sup>34)</sup>

---

자료를 베껴 쓴 것으로 목차나 내용이 같고 표기만 약간씩 다르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 春 김두원저」라고 기록하여 새로운 자료처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김두원 필사본과 진성기 채록본을 별개의 자료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살펴보니 「초감제」는 진성기씨가 채록한 <김병효본>과 같고, 「천지왕본」은 <이무생본>과 그 내용이 같다. 서사단락의 차이는 없으나 서술 어미와 조사가 약간씩 다르고 <이무생본>의 대화체의 내용을 문장으로 축약하여 서술해 놓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두원의 자료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33) 1982년에 필사한 무가집으로 책 속에 ‘무진년(1928) 문창헌 필사’로 되어 있어 최초의 무가집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 자료는 무당서를 찾으려고 수년간 여러 마을을 추적하여 다닌 고창화 선생이 대정지역의 문정봉이라는 심방이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1983년 입수하여 복사한 자료라고 한다. 문정봉 심방은 1988년 사망하였으며 문정봉(9촌 숙질간)이 문창헌 옹(文彰憲翁)에게 무서(巫書)를 써 주면 다른 무서와 비교해보마 하여 문정봉이 부르는 것을 옆에서 한자의 음으로만 썼다고 한다. 자신은 ‘고송’이란 호도 없고, 본문을 한문의 음으로만 썼지 옆의 한글은 쓴 일이 없으며, 『풍속무음』이란 제목이나 ‘무진년 3월일 고송 문창헌 송’이라고 쓴 바 없다고 했다. 또, 그 자료는 1982년에 쓴 것이라 했다. 따라서 이 책은 1982년 문창헌 옹이 이두식차자표기(吏頭式借字表記)로 쓴 것을 문정봉이 한글을 붙여 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문정봉의 구술을 다시 한글로 적어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4) 여기에서는 「초감제」라는 명칭으로만 채록되고 「천지왕본풀이」가 없는 고창학, 강태욱, 김병효 3명의 채록본도 넣었다. 앞으로 「베포도업침」, 「초감제」라고 채록된 본들은 A단락으로 처리하겠다. 이 3명의 채록본은 <이무생본>으로 묶어 연구하겠으나, A단락을 서술할 때는 각각 <고창학본>, <강태욱본>, <김병효본>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현용준이 채록한 것은 「베포도업침」 부분은 안사인 심방이, 「천지왕본풀이」 부분은 정주병 심방이 구연한 것을 채록하여 하나의 무가로 묶어 책에 실어 놓았다. 앞으로 현용준이 채록한 본은 구연한 심방이 다르기 때문에 A단락을 서술할 때는 <안사인본>이라 하고, B~J단락을 서술할 때는 <정주병본>이라 하도록 하겠지만 자료의 편수는 1편으로 보도록 하겠다.



[표-1] 「천지왕본풀이」의 채록 현황

번호	자료명	구송자	조사자 (채록자)	채록 년도	발표지	간행처	발표 년도
1	초감제	고창학	진성기	1960	제주도무가본풀이 사전	서울 : 민속원	1991
	초감제	강태욱	"	"	"	"	"
	초감제	김병효	"	"	"	"	"
	천지왕본	이무생	"	"	"	"	"
2	베포도엽침	강일생	임석재	1974	제주도에서 새로 얻은 몇가지 <sup>35)</sup>	제주 : 제주 도 17호	1974
3	초감제	박봉춘	적송지성 추엽용 (赤松智城 秋葉隆)	1937	조선무속의 연구(朝 鮮巫俗의 研究)	대판옥호서점 (大阪屋號書店)	1937
	천지왕본풀이	"	"	"	"	"	"
4	베포도엽침	이중춘	문무병	1994	제주도 큰굿 자료	제주 : 제주도 · 제주전통문화 연구소	2001
	천지왕본풀이	"	"	"	"	"	"
5	천지왕본풀이	이중춘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자료집	제주 : 칠머리 당굿보존회	1999
6	초감제	한생소	문무병	1994	제주도 큰굿 자료	제주 : 제주도 · 제주전통문화 연구소	2001
	천지왕본풀이	"	"	"	"	"	"
7	베포도엽침	안사인	현용준	1965	제주도무속자료사 전	서울 : 신오문 화사	1980
	천지왕본풀이	정주병	"	"	"	"	"
8	초감제본	문정봉	문창현	1982	풍속무음(風俗巫音)	제주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천지왕본	"	"	"	"	"	"
9	천지왕본풀이	고대중	장주근	1973	제주도 무속과 서 사무가 <sup>36)</sup>	서울 : 역락	2001

35)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비교민속학 7집(경북 : 비교민속학회, 1991).에 다시 수록되었다.

36) 이 책은 『한국의 민간신앙』(자료편)동경 : 금화사, 1973.'의 무속 개설을 손질하고 주석을 새로 달았다고 한다.

자료들과의 비교는 이야기를 이루는 구체적인 표현이 다 다르므로 공통적인 부분을 추상화하여 기본 내용 단락으로 삼는다. 각 편을 포괄하는 내용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혼합되었던 천지가 분리되면서 천지개벽이 되었다.
- B.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연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 C. 천지왕은 총명부인을 통해 수명장자의 악행을 알고 수명장자를 징치했다.
- D. 천지왕은 징표(박씨)와 함께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늘로 올라갔다.
- E. 대별왕과 소별왕이 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을 받자 어머니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 F.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씨를 심어 그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만났다.
- G. 대별왕과 소별왕이 복수로 존재하는 해와 달을 화살로 쏘아 하나씩 뜨게 만들었다.
- H. 대별왕과 소별왕은 서로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기로 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대별왕이 이겼다.
- I. 소별왕은 다시 꽃 가꾸기 내기를 제안했다. 소별왕이 자신의 꽃을 대별왕의 꽃과 바꿔치기 하여 내기에서 이겼다. 그 결과로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 대별왕은 저승을 차하였다.
- J. 대별왕이 소별왕 대신 이승의 큰 혼란을 정리하였다.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전승되며 지금도 구연되고 있으나,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서 착종이 심한 편이다. 즉, 각 자료는 몇 개의 공통되는 삽화는 공유하고 있으나 그 서사적 진행이 약간씩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도 차이가 많다. 이는 구송자의 기억·발음상의 오류, 채록자의 필기 오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천지왕본풀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자료의 채록이 오랜 시기에 걸쳐 드물게 이루어지다 변이가 극심하게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sup>37)</sup> 이제 각 편에 따라 구체적인 장면에서 보이는 서술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사단락을 단위로 자료마다의 차이점은 구연자의 성명을 따서 ‘<~본>’이라 적기로 하겠다.

37) 김현선, 한국의 창세 신화(서울 : 길벗, 1994), 132쪽.

A단락은 모든 채록본에 존재한다. 세상이 생겨난 모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몇 개의 화소가 탈락, 첨가, 도치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A단락에는 하늘과 땅이 열리는 모습, 음양의 융합, 산과 물의 기원, 별들이 생성한 모습, 해와 달이 생겨난 모습, 지리·문화의 발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천지개벽시 도업을 제이르난, 천지간 상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밤도 왁왁 일무공허고 낮도 왁왁 일무공 허난,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천가(天開)는 자(子)허고, 지가(地開)에는 축(丑)허고, 인가(人開)에는 인(寅)허시난, 하늘 머린 지토두고, 땅의 머린 지늦추난, 하늘로는 청이실, 땅으로는 물이실 나난 떡징ㄴ치 굽이 나간다. 갑을동방(甲乙東方)은 너엄들고, 경신서방(庚辛西方)은 출릴들고, 병저남방(丙丁南方)은 놀겁들고, 인계북방(壬癸北方)은 활길드난, 동성계문(東星開門) 수성계문(水星開門)이 삼경계문허난 하늘로는 조금씩 떡징ㄴ치 굽이 나간다. <이중춘본><sup>38)</sup>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니다 엇더한 것이 천지혼합입니까 하늘과 땅이 맞붙든 것이 혼합이요 혼합한 후에 개벽이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개벽이뇨 하늘과 땅이 각각 갈라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엇떠케 되여스릿가 하늘로부터 조이슬이 나리고 따로부터 물이슬이 소사나와서 음양이 상통한직,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 하늘 머리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자방으로 열이고 따머리는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축방으로 열이고 사람머리는 병방으로 병자년 병자월 병자시에 열이시고 동방으로는 이엄을 드르고 서방으로는 출리를 치고 남북방으로는 나래를 들이고 천지개벽 되었습니다 <박봉춘본><sup>39)</sup>

태초에 세상은 하늘과 땅이 맞붙어 구분이 없고, 해와 달이 없어 캄캄하였으나 하늘과 땅이 스스로 열리면서 구분이 된다. 천지가 개벽하는 모습을 새가 머리를 들고 울면서 날갯짓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거나 천황(天皇)·지황(地

38) 문무병, 제주도 큰굿 자료(제주 : 제주도·제주전통문화, 2001). 이하 인용은 같은 책이므로 <이중춘본>처럼 자료의 이름만을 적기로 한다.

39)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서울 : 동문선, 1991). 이하 인용은 같은 책이므로 <박봉춘본>처럼 자료의 이름만을 적기로 한다. <박봉춘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읽기가 불편하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봉춘본>을 인용할 때는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다.

皇)·인황(人皇)답으로 세분하고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고창학본>에서는 옥황의 ‘도수문장’이 하늘은 위로 올리고, 땅은 아래로 낮추며 인위적으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대중본>에서도 천지가 구분이 될 때 솟아난 ‘갑자생인’과 ‘을축생인’이 하늘과 땅의 분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창학본>의 옥황의 도수문장은 해와 달의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대중본>의 ‘갑자생인’과 ‘을축생인’은 개벽을 도운 존재로만 그려지고 있고, 만물이 탄생되는데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이 개벽이 되는데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며 <고창학본>의 도수문장만 해와 달의 생성 외에는 만물이 생겨나는 데에 관여하지 않은 존재이므로 조물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사인본>, <문정봉본>은 천지가 맞붙었다가 나누어질 때, 하늘은 자(子)하고, 땅은 축(丑)하고, 인간은 인(寅)하며 하늘과 땅이 스스로 열리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된다. <한생소본>, <이중춘본>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었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초의 시간에 대한 인식만 다를 뿐 방법을 서로 같다. <김병효본>, <강태욱본>에서는 하늘, 땅, 사람 외에도 귀신, 마소, 마소 등 만물이 열리는 방향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봉춘본>, <고창학본>, <고대중본>, <이중춘본>에서는 개벽된 후에 하늘이 다시 33하늘로 나뉜다.

잉은 이도 삼하날, 지하에도 삼하날, 지자도 삼하날, 삼십 삼천 구천 서른 세 하날, 이것이 하날이외다. <박봉춘본>

잉 우이도 삼하늘 발 우이도 삼하늘 지하 우도 삼하늘 지하 아래 삼하늘 삼십삼천 설은 시 하늘이외다. 이 하늘은 청청 맑은 하늘이외다. <고창학본><sup>40)</sup>

40)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서울 : 민속원, 1991). 이하 인용은 같은 책이므로 <고창학본>

여기에서의 하늘은 단순히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지상, 지하의 공간을 세분한 제 층들을 말한다. 이는 불교의 삼계(三界)관념에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sup>41)</sup>

다음으로 음양의 상통에 따른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늘론 청이실이 느리고 땅으론 물이실이 솟아나고 천지음양이 통흡네다. <고창학본>

하늘로 청이슬(靑露) 땅으론 흑이슬(黑露) 중앙(中央) 황이슬(潢露) 느려합수(合水) 뉘때 천지인왕(天地人皇) 도업으로 제 이르자 <안사인본> <sup>42)</sup>

하늘과 땅에서 이슬이 생겨나 합수가 되어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은 물의 근본이 된 창조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슬의 합수에 의한 음양의 상통은 <강태옥본>, <강일생본>, <김병효본>, <한생소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본에 나타나 있다. <안사인본>, <고창학본>, <고대중본>에서는 하늘과 땅이 열리고 나서 이슬의 상통으로 비로소 ‘천지인’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는 음양의 상통으로 인간과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박봉춘본>, <이중춘본>에서는 이슬의 합수로 인하여 한 덩어리로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분리된다고 설명한다. 이 본들에서는 물의 창조적 힘을 더욱 확대해서 그 힘이 천지개벽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과 물은 음양의 상통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으나 혼합된 천지처럼 구분이 없었다.

---

처럼 자료의 이름만을 적기로 한다.

41) 불교의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크게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삼계(三界)로 나누고 있는데, 삼계는 다시 몇 개의 천으로 세분되어 삼삼삼천(三十三天)이 된다.

4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 신구문화사, 1980). 이하 인용은 같은 책이므로 <안사인본>처럼 자료의 이름만을 적기로 한다.

이 하늘광 땅 스이에는 산도 굽이 납네다. 물도 굽이 납네다. 산 밑디는 물이 나고 물밑디는 산이 나고, 산광 물이 굽이우다. 산중에는 천하맹산 골용산이우다. 물중에는 황하수가 위주우다. <고창학본>

천지간에는 무엇이 같입니까 산도 수도 굽이라 산수중에 무엇이 몬저 낮소릿까 구별 못합니다 산이나고 물이 낮스니 산섭에 물이 나고 물속에 산이 낮스니 산으로 몬저 생기겟나니다 <박봉춘본>

이처럼 만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산과 물 또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 이 부분은 <안사인본>, <문정봉본>, <한생소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천지개벽이 되고, 세상의 모습이 하나하나 갖추어가면서 별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 부분은 <한생소본>을 제외한 모든 본에 나타나 있다. 동서남북에서 큰 별들이 떠서 자리를 잡자 작은 별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방향에서 떠오르는 별은 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각 본에서 생성된 별자리 이름

<고창학본>	동 : 셋별, 서 : 백토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김병효본>	동 : 청토성, 서 : 태백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강태욱본>	동 : 셋별, 서 : 태광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중앙 : 황토성
<고대중본>	동 : 삼태성, 서 : 태백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안사인본>	동 : 견우성, 서 : 직녀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이중춘본>	동 : 견우성, 서 : 직녀성, 남 : 노인성, 북 : 태금성
<문정봉본>	동 : 셋별, 삼태성, 서 : 태백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중앙 : 견우성, 직녀성
<강일생본>	동 : 셋별, 서 : 태광성,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박봉춘본>	동 : 셋별, 서 : 어시렁별, 남 : 노인성, 북 : 북두칠성, 중앙 : 견우성, 직녀성

셋별(금성), 태백성(금성), 노인성(남극성), 북두칠성, 직녀성, 견우성 등 민족의 신앙과 생활에 밀접한 별들이 생성된다. 별자리의 명칭이나 생성되는 순서는 중국의 고대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면이 보인다. 대부분의 채록본에서는 별

의 생성은 음양의 상통으로 인한 만물의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며 해와 달보다 먼저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박봉춘본>에서는 별의 기원을 각각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대별왕과 소별왕이 활로 쏘아 떨어뜨리자 사방에서 별이 생긴 것으로 이야기한다. <고창학본>에서는 사방으로 여러 별들이 뜨고 나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정리한 해와 달이 다시 동쪽과 서쪽의 셋별이 되었다며 별이 생성되는 모습을 이중으로 진술하고 있다.

해와 달의 생성에 관해서는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과 신이한 존재가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양분된다. 스스로 생겼다고 구연하는 본은 <문정봉본>, <안사인본>, <한생소본>, <이중춘본>이다. 신이한 존재 때문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생겼다고 나타나 있는 본은 <고창학본>, <강태욱본>, <강일생본>, <김병효본>, <박봉춘본>, <고대중본>으로 후자가 더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강일생본>, <박봉춘본>, <고창학본>에서는 ‘앞이마’와 ‘뒷이마’에 눈동자가 두 개씩 있는 존재(반고씨, 청의동자)의 눈동자로 어떤 신이한 존재(청의동자, 도수문장, 두수문장)가 해와 달을 각각 두 개씩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고창학본>의 ‘도수문장’은 출현방법은 나타나지 않으나 천지가 혼합될 때부터 있었던 존재로 천지분리의 주체가 되기도 하며, 해와 달을 만들기도 하여 창세신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김병효본>, <강태욱본>에서는 신이한 존재가 반고씨의 눈으로 해와 달을 만들지 않고 반고씨의 ‘앞이마’와 ‘뒷이마’에 두 개씩 있는 눈동자가 해와 달로 변한다. 이 ‘반고씨’는 문맥상에서 이미 존재해 있었거나, 해와 달이 생겨나기 직전에 솟아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대중본>에서는 ‘천지왕아들이 갑오왕께 장가들 때 지보왕이 기쁜 마음으로 해와 달을 두개씩 내보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이한 존재가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따라 보이는 ‘청의동자’나 ‘반고씨’는 중국의 창세신화의 반고의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중국 창세신화의 ‘반고’처럼 창세의 임무를 담당하는 창세주가 아니라, 단순히 일월의 기원과 관련된 화소로만 차용되고 있을 뿐 본격적이서사적 문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sup>43)</sup>

해와 달이 생겨 태초의 어둠은 밝혀지지만 두 개씩 생겨서 백성들이 낮에는 햇살아 말라죽고, 밤에는 추워죽는 고통을 겪는다. 이 복수의 일월은 인위적으로 숫자가 하나씩으로 조정된다. 이 부분은 A단락에서 나타나는 본이 있고 G단락에서 나타나는 본이 있다.<sup>44)</sup> A단락에서 해와 달을 조정하는 본은 <고창학본>, <안사인본>, <박봉춘본>, <문정봉본>, <강태욱본>, <김병효본>이다. 이 중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힘을 합쳐 해와 달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본은 <고창학본>, <안사인본>, <박봉춘본>, <문정봉본>이다. 특히 <박봉춘본>은 해와 달을 조정하는 부분은 서사적 구성을 보여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을 활로 하나씩 쏘아 정리했다고 간단히 언급하는 다른 본과 차별이 나타난다.<sup>45)</sup> G단락에서 나타나는 본은 <정주병본>, <이중춘본>, <한생소본>, <이무생본>, <강일생본>, <고대중본>이다. 다른 존재가 해와 달의 수를 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본도 있다. <강태욱본>, <이무생본>에서는 ‘활선생거저님’, <김병효본>에서는 ‘유운거저<sup>46)</sup>’가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3) ‘반고씨’가 중국의 반고와 차이 나는 부분은 반고신화에서는 반고의 눈동자가 하나는 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달이 되는 것에 비하여,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청의동자, 반고씨는 앞이마와 뒷이마의 두 눈동자가 두 개의 해와 달로 되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게다가 두 눈동자를 일월로 만드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왕칭지계 차이가 난다. 그 주체가 곧 <박봉춘본>의 옥황 도수문장, <강일생본>의 동의 용궁 청의동자, <고창학본>의 옥황의 도수문장 등이다. 저절로 죽어서 우주의 만물이 되는 반고와는 다르게 거인을 움직여 우주만물을 만드는 우리의 거인과는 분명히 다르다. 김헌선, 앞의 책, 197~198쪽.

44) A단락은 「초감제」 명칭으로 채록된 본이고 G단락은 「천지왕본풀이」 명칭으로 채록된 본이다.

45) 천지왕이 지상의 바지왕과 결연하여 낳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을 조정한다. 이는 다른 구연자들이 「천지왕본풀이」(B~J단락)에 구연하는 부분인데 이 본에서는 「초감제」(A단락)에 나타나 있어 특이한 구성을 보인다. <박봉춘본>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을 정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초감제」의 내용과 「천지왕본풀이」가 서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만남은 <박봉춘본>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왔다가 우연히 결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혀 상반된 내용을 같은 구연자가 구연하고 있다.

46) 문맥상으로 파악할 때 ‘거저’는 ‘거사(居士)’의 제주도 사투리로 생각된다.



이 서사무가에서는 자연적 질서가 잡힌 후에 각 각 신들이 좌정한 곳, 산들이 지리적 위치, 문화적 인물의 탄생, 제도와 문물의 설명들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부분 서울, 왕의 이름, 강의 이름 따위를 열거하거나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 등에 관한 서술들이 ‘~제 이르자’라는 문장 뒤에 그 인물의 이름과 업적이 체계나 순서 없이 나열된다.<sup>47)</sup>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A단락 안에 존재하는 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A단락의 화소 존재 유무

자료명 세부내용	<박봉춘본>	<고창학본>	<강태욱본>	<김병효본>	<안사인본>	<강일생본>	<문정봉본>	<한생소본>	<이중춘본>
천지혼합	○	○	○	○	○	○	○	○	○
천지개벽	○	○	○	○	○	○	○	○	○
새의 형상	○	○	○	○	○	○	○	○	○
이슬의 합수	○	○	×	×	○	×	○	×	○
산과 물 형성	○	○	○	○	×	○	×	×	○
별의 생성	○	○	○	○	○	○	○	×	○
복수 일월의 생성	○	○	○	○	○	○	○	○	○
문화의 기원	○	○	○	○	×	×	○	○	○

A단락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만물이 생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단락으로 개벽의 과정을 나타내는 화소들이 나열되어 있다. 몇 개의 화소가 탈락, 첨가, 도치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B단락은 <강일생본>을 제외한 모든 채록본에 나타나 있다. 하늘에 있는 천지왕이 땅에 있는 총명부인(백주 늙은 할망의 딸, 갑오왕, 총명부인, 서수암이, 총명)과 결연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47) 이 부분은 「천지왕본풀이」의 뒷부분에도 나타나기도 한다.

옥황상제 천지왕, 흐를날은 꿈에 몽(夢)이 오느니 해(日)도 하나 먹어 베고, 들도 하나 들러먹어 베니, 총맹왕총맹부인에 천상배필(天上配匹) 못져 지국성에 느려 산다.<sup>48)</sup> <정주병본>

천지왕(天地王)은 옥황(玉皇)이고, 지부왕은 총맹부인. 천지왕이 지부왕에 느려사난<sup>49)</sup>  
<이중춘본>

<정주병본>에서는 천지왕이 세상에 두 개씩 내보낸 해와 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던 중에 천지왕은 해와 달을 하나씩 삼키는 꿈을 꾸다. 천지왕은 그 꿈을 이세(二世)를 얻을 태몽으로 생각하여 총맹부인과 결연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온다.<sup>50)</sup> <한생소본>에서도 인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연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sup>51)</sup> <고대중본>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으나 하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sup>52)</sup>

<강일생본>에서는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연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생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고통을 겪는다. ‘서풍성’이라는 사람이 구상나무 윗가지에 올라가 하늘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천지왕 아들 삼형제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서울 : 신구문화사, 1980). 이하 인용은 같은책 책이므로 <정주병본>처럼 자료의 이름만을 적기로 한다.

49) 문무병, 제주도 큰굿 자료(제주 : 제주도 전통문화연구소, 2001). 이하 인용은 <이중춘본>으로 적기로 한다.

50) 여기에서는 <안사인본>의 「베포도업침」과 해와 달의 기원이 전혀 다른 이유로 나타난다. <안사인본>에서는 스스로 해와 달이 두 개씩 생겨나나, <정주병본>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천지왕이 조물주의 성격을 보이며 해와 달을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중 진술이 나타나는 이유는 안사인이 구연한 「베포도업침」과 정주병이 구연한 「천지왕본풀이」를 묶어서 한 책으로 출판한 결과로 생각된다. <정주병본>의 「천지왕본풀이」에서의 천지왕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적 창조신의 모습이 보인다.

51) ‘인간법이 마련돼어 주민 해연에 그 때엔 버무왕(천지왕)은 인간 내려간 내려사난 내려잡데다. 천지왕이 지부황(地府王)을 좇안 내려가난’

52) ‘천지왕아들이 갑오왕(甲午王)께 장개들 때 집뿐 사례로서’

‘아들 삼형제가 솟아났다’는 표현은 삼성신화나 일반신본풀이, 송당계본풀이에서 나타나듯이 범상치 않은 출생을 통한 신격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모신(地母神)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발 지생관(自發 地生觀)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본에서만 나타난다.

B단락은 본에 따라서 C단락과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박봉춘본>, <이무생본>, <문정봉본>은 천지왕이 악행을 일삼는 수명장자(취맹이, 수명장제)를 징치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총맹부인(서수암이, 백주 늙은 할망의 딸, 총맹이)을 만나 결연한다.

<박봉춘본>에서는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왔으나 징치에 실패를 하고, 백주 늙은 할망의 집에 찾아가 하룻밤 묵겠다고 한다. 백주늙은 할망이 집이 누추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지만 천지왕은 막무가내로 하룻밤 묵는다. 노파가 쌀이 없어 걱정을 하자 천지왕은 수명장자 집에 가서 쌀을 꺾어 오라고 한다. 노파는 수명장자에게 쌀을 꺾어서 천지왕과 군사들에게 대접한다. 천지왕은 백주 늙은 할망의 딸이 머리 빚는 소리에 우연히 잠이 깬 천지왕은 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결연하게 된다.

<이무생본>에서는 천지왕이 수명장자 징치에 실패를 하고 박우왕집에서 묵는다. 천지왕은 밤에 총맹부인에게 밥이 시려워서 못 자겠다고 하며 혼기가 찬 여자를 요구한다. 총맹부인이 딸 서수암에게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서수암의 방만 들락거리자, 서수암이 그 사실을 알고 자청해서 천지왕에게 간다. 그런데 천지왕은 서수암이 먼저 찾아온 것을 거절한다. 다음날 서수암이 방에 찾아가서 남자가 여자 방을 찾아 가야지, 여자가 남자 방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며 달래어 결연을 한다.

<문정봉본>에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왔다가 박우왕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천지왕이 박우왕에게 밥을 요구하자 박우왕은 쌀이 없다고 한다. 천지왕은 부자인 수명장자에게 쌀을 꺾어 오도록 한다. 박우왕은 수명장자에게서 모래가 섞인 쌀을 와서 그 쌀로 천지왕을 대접한

다.<sup>53)</sup> 밤이 되자 천지왕은 박우왕에게 딸을 자신의 방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박우왕은 온갖 대접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왕이 딸까지 요구한다고 대성통곡을 한다. 딸 총명이가 아버지가 우는 이유를 알고 나서 그 손님이 천지왕임을 밝히자 박우왕은 깜짝 놀라며 총명이에게 천지왕을 잘 모시라하여 천지왕과 서수암이 결연을 한다.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결연하는 <박봉춘본>, <문정본본>, <이무생본>에서는 총명부인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총명부인의 부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연에 의한 결연인지 천지왕의 요구에 의한 결연인지 결연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 서사성이 풍부하다. 하지만 질서의 재창조라는 신화적 의미가 쇠퇴한 모습이며 천지왕의 신적 정체성에 의문이 생긴다.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결연은 각각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의 개수를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신이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연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본이 더 원형에 가까운 본으로 생각된다. 천지왕은 인자한 하늘의 신인 모습보다는 쌀이 없어 대접 못한다는 사람에게 악인인 수명장자에게 쌀을 꿰 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딸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성성에 강한 결핍이 느껴진다. 마치 그 모습은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와 흡사하다. 또한,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수명장자에게 쌀을 꿰오라고 시키는 행위는 모순적인 행동이라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주병본>, <이중춘본>, <한생소본>에서는 총명부인이 수명장자에게 쌀을 꿰오는 행위를 함에 따라 수명장자의 악행을 알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화소이지만 <박봉춘본>, <이무생본>, <문정본본>에서는 쌀을 꿰오는 행위가 이야기의 전개상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

53) 쌀을 꿰 오는 화소는 총명이가 모래 섞인 쌀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자, 천지왕이 총명이에게 체의 사용을 알려주었다는 삽화로 연결된다. 이 본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기 는 하나, 내용의 전개에 큰 영향력이 없는 삽화이다.

이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연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온 본들이 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C단락은 <강일생본>, <고대중본>을 제외하고 모든 채록본에 나타나지만 본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총명부인은 가난하여 천지왕을 대접할 쌀이 없었다. 총명부인이 수명장자에게 쌀을 꾸러 가니 수명장자는 모래를 섞은 쌀을 꾸어준다. 총명부인이 쌀을 여러 번 일어 천지왕에게 대접하지만 천지왕은 첫 손가락부터 모래를 씹고 만다. 천지왕이 총명부인에게 모래가 씹히는 이유를 묻자 총명부인은 수명장자의 악행을 이야기한다. 총명부인의 말을 들은 천지왕은 패씹하다며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이 단락은 수명 장자의 징치 성공 여부,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주체, 징치 과정과 방법, 징치 후 결과에 따라 각 이본들 간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각 본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주명본>에서는 수명장자뿐만 아니라 수명장자의 아들과 딸의 악행도 서술되는데 그 악행에 알맞은 벌을 받는다.

『패씹하다, 패씹하여. 수명장제가 없는 인간덜 대미 꾸 주렁 흐민 백모살 허꺼 주고, 없는 인간덜 소미(小米) 꾸레 오라시민 흑모살(黑沙) 허꺼주고, 없는 인간덜 쌀 꾸레 오라시만 큰 말로 받아당 죽은 말(小斗)로 풀양 부제(富者) 뉘니.』

『수명장제 딸덜은 없는 인간덜 김질(雜草) 메여 도랭허영, 오르그네 김질메여 주머는 좋은 장(醬)은 지네 먹고 고린 장을 주어서 부제뉘엿수다. 수명장제 아들덜 모쉬(牛馬) 물을 맥여 오랭흐민 물밭통에 오줌(小便) 굴겨 두고 믱쉬 물 맥여 오랏수뉘 용하명 사옵네다.』

『패씹하다, 수명장제 패씹흐고냥아.』

옥황상제 천지왕이

『베락장군(霹靂將軍) 내보내라. 베락스제(霹靂使者) 내보내라. 올레장군 내보내라. 올레스제 내보내라. 화덕진군(火德眞君) 화덕장군 내보내라.』

수명장제 칩(家)의 정을 더껴 놓고 불천수를 시겨간다.

『수명장제 칩이 사름 죽어난 딘 일곱 신당(神堂) 뒤에 들어사근 얻어 먹고 화덕진군(火德眞君) 화덕스제(火德使者) 나간 딘 불찍스제라 얻어먹기 서련흐라. 수명장제 딸아기 죽수까락 흐나 쥘러그네 쫓버랭이 몸으로 마련흐고, 수명장제 아들덜

므쉬(牛馬) 물을 아니 맥여그넝에, 똥소로기 몸으로 환생(還生)을 시겨근 주둥이 꼬부라지게 흐영 비 오라나민 늘갯물(羽水)이나 흘타 먹게 흐라』 <정주병본>

<이중춘본>, <한생소본>에서는 자식들의 악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명장자(만년장자)는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타나며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쉽게 징치한다. 반면에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하는 본들은 수명장자의 악행이 다르게 나타나며, 수명장자 징치에 실패하거나 성공하여도 그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박봉춘본>에서는 말, 소, 개 9마리나 가진 수명장자가 천지왕에게 ‘이 세상에 날 잡아갈 자도 있으랴’하며 도전을 한다. 화가 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치하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그러나 지상국 부인과 결연해서 낳은 소별왕이 대별왕과의 이승차지 경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수명장자를 간단히 징치한다. 소별왕에게 징치당한 수명장자는 모기, 파리, 빈대, 각다귀가 되었다고 한다. 이 본에서만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

<이무생본>에서는 수명장자가 아버지에게 하루 세 끼를 잘 대접했으나 예순살이 되자 세 끼마다 죽을 준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수명장자 아버지는 수명장자에게 이유를 물어본다. 수명장자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그렇다고 대답한다. 수명장자 아버지는 제삿날에 이승으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여 살아서 끼니마다 밥을 잘 얻어먹다 죽는다. 선달그믐이 되자 저승에서는 사람들에게 명절 음식 받아먹고 오라며 모두 이승으로 보낸다. 사람들 모두 즐거워하면서 이승으로 가지만 수명장자 아버지만은 이승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천지왕이 수명장자 아버지를 달래 이승으로 보내나 수명장자 아버지는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고 돌아온다. 수명장자의 행동에 화가 난 천지왕은 군졸들을 불러 수명장자를 잡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부하들은 수명장자 집에 있는 개, 소, 말 때문에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온다. 이에 천지왕이 직접

수명장자를 징치하려고 내려오지만 수명장자 집에 개, 소, 말이 많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 가지에 앉아서 갓은 조화를 부린다.

“열두 송흙을 들이라. / 그놈의 집 솔앞이 강 / 장삼게염이를 일루라.” / 솔앞이 게염이 일어나난, / 늦인득이 정하님은, / “솔앞이 게염이가 일었수다.” / 쉬맹이가 말을 흐되, / “그게 송흙이 아니다.” / “솔뒤에 용달버섯이 났수다.” / “장재칩이 반찬 떨어져 가난 / 초기 대신 났다. / 그게 송흙 아니다. / 반찬 대신 볶으라.” / “말치가 저 올래에 영기덩기 걸음을 햄썬다.” / “장재칩이 매날 불습아부난 / 더위 깨래 나갔다. / 그게 송흙이 아니다.” / 이젠 “밭갈쇠가 지봉 한간으로 들언 / 지봉 상미를 넘엄수다.” / “장재칩이 쇠 잘 맥이난 / 술쳐부난 콤포재완 경흐염다. / 것도 송흙이 아니다.” / 천지왕은 일만군사 시견 / 쉬맹이신디 송흙을 들여봐도 / 쉬맹이가 깎딱을 안 흐난 / 이젠 썩칠망을 굶다단 / 쉬맹이 대갱이래 팍 썩우난, / 그젠 쉬맹인 / “아이구! 대맹이여, / 에이구! 대맹이여, / 큰 아들이 / 도치 그정 오랑 / 나 대맹이 직어도라, / 대맹이 아판 못살키여.” / 큰아들은 말을 흐되, / “아방 대강일 / 도치로 어떻 직읍네까? / 난 못 흐쿠다.” / 셋아들그라 곱아도 / “아방 대강일 못직으쿠다.” / 족은아들그라 곱아도 / “못직으쿠다.” / 흐연, / 흘 수 엇이, 이젠 / 수미를 종년을 불린 / “나 대갱일 도치로 직어도라. / 아판 못살키여.” / 흐난, / 종년은 츄마 한집 대갱일 / 직을 수라 엇언 / 도칠 들런 대갱일 직는 것츄록 흐단 / 대문지방을 더락기 찍으난, / 천지왕은 / 쉬맹이 대갱이 썩운 / 철망 부서지카푸덴 / 철망을 확 건우우난 / 아픈 대강인 옥곳 나사진다. / 천지왕은 느시 쉬맹일 / 잡지 못흐연 / 바구왕 집으로 가는구나. <이무생본>

위에 나타난 조화들은 모두 집안이 망할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다.<sup>54)</sup> 하지만 수명장자의 특유한 배짱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이무생본>은 수명장자를 징치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본이다.

<문정봉본>에서는 수명장자 칠대 당조부거지가 이승에서 한 약속으로 저승에 와서 기제사(忌祭祀)를 찾아 먹지 못한다. 문지기가 옥사나장<sup>55)</sup>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옥사나장은 염라대왕에게 보고를 하고 염라대왕은 옥황상제

54) 첫 번째로 등장한 부엌에 개미가 꼬이는 것은 제주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나쁜 징조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용달버섯(문둥이 버섯)은 습기가 많이 차고 썩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 폐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세 번째로 나타난 솔이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고대경, 신들의 고향(서울 : 증명, 1997), 25쪽.

55) 문맥상에서 감옥을 지키는 나장(羅將), 즉 감옥을 지키는 나졸(羅卒)을 의미하는 말로 파악된다.

에게 알린다. 옥황상제는 천지왕에게 수명장자의 행실을 훈계하라 명한다. 천지왕은 지상에 내려와 박우왕네 집에서 묵고 그 딸인 총명이와 결연한 후, 수명장자 집에 가서 여러 조화를 부린다. 천지왕이 갖은 조화를 부려도 수명장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옥황상제께 보고를 하자 옥황상제는 화덕진군 해명이를 보낸다. 천지왕은 해명이에게 수명장자 집으로 가서 피난가라고 권유하고 오라고 한다. 해명이는 수명장자를 설득하려하지만 수명장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 천지왕은 해명이에게 집을 태우라고 명령하여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천지왕은 수명장자에게 부모 제사를 잘 모시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노인을 공경하며 아들을 잘 지도할 것을 이야기한다. 수명장자는 그 말을 잘 들어 개과천선하여 큰 부자가 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 본에서만 나타난다.

<문정봉본>은 여러 모로 특이한 점이 많은 본이다. 다른 본들에서는 이승과 저승에 대한 개념적 인식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공간의 질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면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본에서는 이미 질서도 체계적으로 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수명장자 당조부거지의 행동을 문지기→옥사나장→염라대왕→옥황상제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 위계가 확실하다. 또한 천지왕보다 더 상위의 신으로 옥황상제를 상징하고 옥황상제의 명으로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 흥미롭다. 천지왕은 도교의 영향으로 옥황상제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데<sup>56)</sup> 같은 존재인 둘을 다른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은 <문정봉본>이 다른 본에 비해서 불교와 도교 등 타 종교의 영향을 많은 결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C단락은 수명장자 징치의 원인에서부터 징치 결과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도 착종이 심하다. C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

56)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서울 : 집문당, 1986), 151쪽.

필자는 도교의 '옥황상제' 명칭이 끼어들면서 무속 신 천지왕과의 관계에서 혼란이 일어나, 옥황상제가 전승집단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져 상위의 신으로 여겨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

[표-4]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내용

자료명 세부내용	<정주병본>	<이중춘본>	<한생소본>	<박봉춘본>	<이무생본>	<문정봉본>
수명장자의 악행 내용	수명장자 : 고리 대금, 딸 : 일꾼들 을 푸대접, 아들 : 마소에게 물을 주 지 않음	고리대금	고리대금	사람들에게 행 패, 천지왕에 대한 도전	아버지 제사를 잘 모시지 않 는 불효	조상을 잘 모 시지 않는 불 효
징치 방법	벼락, 우레, 불	불	불	1. 조화 부리기 2. 철망 씌우기	1. 조화 부리기 2. 철망 씌우기	1. 조화 부리기 2. 불, 바람
징치 주체	천지왕	천지왕	천지왕	소별왕	천지왕	천지왕과 화덕 진군 해명이
징치 여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천지왕 실패→ 소별왕 성공)	실패	성공
징치 결과	수명장자 집 : 불 찍긋마련, 딸 : 팔 벌레, 아들 : 솔개	잡식법 마련	내용 탈락	수명장자가 모 기, 파리, 빈대, 각다귀가 됨	수명장자 악행 지속	수명장자의 개 과천선

C단락은 장자 징치의 성공 여부는 성공과 실패로 이원화되고 있다. 천지왕이 결연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 경우, 천지왕은 하늘의 최고신<sup>57)</sup>다운 면모를 보이며 신이한 능력으로 수명장자를 쉽게 징치한다. 하지만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 내려온 경우는 수명장자와의 대결이 자세히 나타나며 징치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 수명장자를 징치함으로써 ‘불찍긋’<sup>58)</sup>이나 ‘잡식

57) 초감제의 소재자인 ‘신청궤’에서는 제주도예 존재하는 1만 8천의 신들을 위계순으로 청해 제상에 좌정하도록 한다. 이때 제일 먼저 불리는 신은 천지왕이다. 그러므로 천지왕은 최고 지위를 가진 신이라 할 수 있다.

58) 화마(火魔)를 쫓아 버리는 무의로 ‘불찍앗음’이라고도 한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행하는 무의로서, 화재의 발생으로부터 소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모의적으로 실연하고, 화마의 퇴산(退散), 화재를 만나 뉘이 이탈한 사람들의 ‘뉘들임’ 행사 등을 중심으로 행한다. 현용준, 앞의 책, 238쪽.

법<sup>59)</sup> 등과 같은 곳이 생겨났다는 시원적인 면모를 볼 때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본이 신화로서의 원래 모습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D단락은 <강일생본>, <고대중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록본에 나타난다. 천지왕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자 부인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징표를 주고 갈 것을 요구한다. 천지왕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박씨를 주며 정월 첫 해일(亥日)에 박씨를 심으라고 이르고 하늘로 올라간다.

<정주병본>에서는 천지왕이 총명부인에게 징표로 박씨 두 알을 준다. <한생소본>, <이중춘본>에서는 천지왕이 총명부인에게 박씨 세 알을 주고 아들을 낳으면 첫째는 대별왕, 둘째는 소별왕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고, 딸을 낳으면 첫째는 대월왕, 둘째는 소월왕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 <박봉춘본>에서는 천지왕은 백주 늙은 할망의 딸에게 ‘박이왕’이라는 신직을 부여하고 징표로 박씨 두 알을 준다. <이무생본>에서는 천지왕은 아들을 낳으면 대별왕, 소별왕이라 이름 짓고, 딸을 낳으면 대별댁이, 소별댁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 천지왕은 총명부인에게 징표로 큰 빛 한 쪽, 박씨 두 알, 다님 한 짝을 준다. <문정봉본>에서는 천지왕은 박씨 한 알을 주고, 부인은 향남빛을 반으로 꺾어서 준다.

E단락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주변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을 받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내용이다. <강일생본>, <고대중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록본에 나타나 있다.

성제 둘이 한 설(一歲) 두 설 돼어 열다섯은 십오세 왕구녀은 차가난 삼천선비 서당(書堂)의 글공비(工夫) 활공비 갔더니 『아비 엇인 호로즈식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어머니에 오라근

『아바님을 좇아 줍서.』

『너의 아바님은 옥황상제 천지왕이 돼여지는구나.』 <정주병본>

---

59) 제사 끝낸 뒤에 제상의 제물을 조금씩 뜯어 문밖에 던져 잡귀를 사귀는 법

박우왕이 외손자를 잘 지도을 하여 성인이 되어 가는대 동내 아동들이 나쁘레며 땀시 하거늘 대별왕 소별왕이 참다도 참지 못하여 가정에 오와 모친보고 아버지 성명이 엇던 사람임내가 무르니 너의 부친이 인간 사람이 아니고 하늘 사람 천지왕이 너의 부친이다하니 <문정봉본><sup>60)</sup>

<이중춘본>과 <한생소본>에서는 주위에서 놀림을 받는 부분은 탈락되고 스스로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61)</sup> <박봉춘본>에서는 놀림을 받지 않고 일곱 살이 되자 스스로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다. <이무생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세 살이 되자 기는 것도 글밭, 우는 것도 글소리, 일곱 살에는 글 한자를 가르치면 열 자’를 아는 뛰어난 인물로 그려진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서당에 가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투하여 아버지가 없다고 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F단락은 <강일생본>, <고대중본>, <이중춘본>을 제외하고 모든 본에 나타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의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라는 신격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아버지를 만나 친자관계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라는 신직을 받는다.

<문정봉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의 덩굴을 타고 올라가지 않고 징표로 박씨를 음양목 옆에 심는다. 박 덩굴이 음양목에 뻗어 올라가자 형제가 음양목에 올라가 축수를 하니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줄을 ‘노각성자부줄’이라고 하는데, 민담과 신화에서 두루 나타나는 요소이다.<sup>62)</sup>

60) 문장헌(한자·한글표기), 문정본 구송, 풍속무음,(제주 :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94). 이하 인용은 <이중춘본>으로 적기로 한다. <문정봉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읽기가 불편하고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정봉본>을 필자가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다.

61) 열 다섯 십오세가 근당해여 가난, 아방국도 득투고 어명국도 득툼테다. <한생소본>, <이중춘본> ‘득투다’는 말은 싸우다는 뜻이지만 채록자는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필자는 채록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다.

62)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는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라 나무에서 하늘에 비니 줄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줄을 타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는 우주목의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로 올라간 후, 천지왕과 만나 친자관계임을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정주병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여 신직을 받지 못하지만, 형제가 알아서 이승을 차지하고자 경쟁을 한다. 덩굴을 타고 올라가보니 덩굴이 빈 용상에 감아져 있었고 형제가 용상차지 싸움을 하다 용상의 왼쪽 뿔이 부러져 땅으로 떨어졌기에 지금의 용상에 왼쪽 뿔이 없다는 기원담이 나타난다. 이 기원담은 <이중춘본>에도 나타나는데,<sup>63)</sup> 「천지왕본풀이」와는 긴밀한 서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임금의 용상의 모습을 보고 내용의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정봉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에 올라가서 팽돌<sup>64)</sup>에 앉아 노는 모습을 선녀가 보고 천지왕 제자에게 알린다. 제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천지왕이 대별왕과 소별왕을 불러오게 한다. 천지왕은 외조모, 부모 성명을 물어보고 헤어질 때 부인이 준 향남빛을 맞추어 부자 관계임을 확인한다.

<이무생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에 도착하여 천지왕의 하마석에서 놀고 있자, 통인(通引)이 그것을 보고 천지왕에게 알려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지왕을 만나게 된다. 천지왕은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외조모, 부모 성명을 물어

---

다. 가야국 시조들도 금빛 그릇이 달려 내려온 자줏빛 줄을 타고 내려온다. 「생불할망본풀이」에서도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가 생불할망 자리를 놓고 내기를 할 때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는 지상과 하늘의 수직적 사고관념을 보여준다.

63) <이중춘본>은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과 『제주도 큰굿 자료』 두 편이 채록되어 있다. 두 편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제주도 큰굿 자료』에 실린 채록본에서는 이 기원담이 나타난다. 먼저 채록된 『제주도 큰굿 자료』에서는 나타나나, 후에 채록된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삽화는 이 신화의 내용과 크게 연관이 되지 않으므로 후에 나중에 구연할 때 구연자가 빼고 구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별왕이 옥황에 상천허난, 용상이 비었더라, 용상 위에 올라사난 용상이 우러렁 울어간다.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무도 타민 임재로다. 웬 뿔 혼 짝을 메었더니, 하늘 천즈는 구름을 타고, 대국 천차는 코끼리를 타고, 우리나라 천즈는 용상타기 마련해엿십네다.’

64) 짐 등을 지고 가다가 편히 내려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널따란 돌

보고 큰 얼레빗을 맞추어 친자 관계임을 확인한다. 또한, 대별왕과 소별왕이 재물을 부리기를 요구하고 천지왕은 그 재물을 받아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시련을 이기고 신성을 얻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인간의 모습으로 퇴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장면은 이 본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

<강일생본>에서는 천지왕이 신직을 부여하는 부분만 나타난다. 스스로 솟아난 삼 형제에게 천지왕은 대별왕은 인간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며 막내는 인간 돌림 마누라로 좌정하라고 이야기한다. 셋째 아들은 신직만 언급되었을 뿐 작품 내에서는 서사적 역할은 전혀 없다.

<이중춘본>에서는 아버지가 징표로 박씨를 주지만, 다른 본들처럼 박씨를 심고 그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 박씨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차지 경쟁에서 패배한 대별왕이 저승으로 갈 때 사용한다. <이중춘본>에서는 아버지의 근본을 묻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연자가 이 부분을 빼고 구연한 것으로 보인다.

G단락은 복수인 해와 달을 커다란 활과 화살로 조정하여 천지왕에게 신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화소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sup>65)</sup> <고대중본>, <정주병본>, <한생소본>, <문정봉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함께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하였다. <강일생본>, <이중춘본>에서는 대별왕이 소별왕의 부탁으로 인간 세상의 여러 혼란을 정리하면서 해와 달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무생본>은 소별왕의 부탁으로 대별왕이 ‘활선생 거저님’을 불러 해와 달을 조정한다.

H단락은 천지왕이 대별왕은 이승을, 소별왕은 저승을 차지하라고 한다. 하지만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 대별왕에게 수수께끼에서 이긴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자고 제안하여 수수께끼 내기를 한다. 모든 본에서 수수께끼 내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채록본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65) 여기에서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 중 둘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나타나면 있는 것으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이다. 두 번째 문제는 ‘동산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풀 중에서 어떤 곳이 무성한가?’이다. 채록본 모두에서 이 두 문제가 ‘질문—대답—반문—승리자 결정’이라는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수수께끼 승리자, 수수께끼를 하는 이유 등에서 변이가 나타난다.

<정주병본>에서는 대별왕이 문제를 내고 소별왕이 대답을 하자 대별왕이 다시 반문을 한다. 소별왕은 반문에 알맞은 대답을 하지 못하여 내기에서 진다. <이중춘본>, <이무생본>은 수수께끼 진행 방식은 똑같으나 문제를 내는 사람, 승리자가 <정주병본>과 반대로 나타난다. <강일생본>에서는 첫 번째 문제만 나타나며 <이중춘본>, <이무생본>과 마찬가지로 승리자는 소별왕이다. 하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천지왕이 은쟁반에 꽃씨를 갖고 와서 꽃 가꾸기 내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생소본>에서는 다른 본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바뀌어 나타난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대별왕이 승리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소별왕이 승리하여 비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봉춘본>에서는 수수께끼 내기와 꽃 가꾸기 내기가 순서가 바뀌어 나타난다. 천지왕이 먼저 은대야에 꽃을 심어 잘 가꾼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라고 한다. 대별왕의 꽃이 만발하게 피자 소별왕은 형인 대별왕이 이승을 차지하면 수명장자를 징치하지 못한다며 걱정한다. 소별왕은 잠을 자자고 하여 대별왕이 잠든 사이에 꽃을 바꾸어 놓는다. 대별왕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알면 죽으리라’ 하고 으르니 소별왕이 사죄하며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고 내기에서 승리하여 이승을 다스리게 된다.

<문정봉본>에서는 천지왕이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대웅전에 가서 인사를 올리라고 하지만 소별왕은 극락세계를 더 구경하고 싶어 한다. 소별왕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한다는 대별왕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을 제안한다.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승리하여 둘은 극락세계를 구경하다 대웅전에 천지왕보다 늦게 도착하여 혼이 난다.

<고대중본>에서는 수수께끼 내기가 이승차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심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결과도 무의미하다. 수수께끼의 진행방식은 소별왕이 문제를 내고 대별왕이 대답을 한다. 소별왕이 다시 반문을 하지만 대별왕은 이 반문에 알맞은 답을 한다. 그리하여 대별왕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수께끼 내기는 <고대중본>, <정주병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별왕이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수께끼의 진행방식은 <고대중본>만 질문—대답—반문—대답—승리자의 결정으로 나타난다. H단락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수수께끼 내기의 변이 내용

자료명 세부내용		<강일생본>	<고대중본>	<정주병본>	<이중준본>	<한생소본>	<박봉춘본>	<이무생본>	<문정봉본>
		수수께끼 목적	이승차지 내기	없음	이승차지 내기	이승차지 내기	이승차지 내기	이승차지 내기	이승차지 내기
수수께끼 제안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질문자	소별왕	소별왕	대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진행방식	질문 → 대답 → 반문	질문 → 대답 → 반문 → 대답	질문 → 대답 → 반문	질문 → 대답 → 반문	문제1) 질문 → 대답 문제2) 질문 → 대답 → 반문	질문 → 대답 → 반문	질문 → 대답 → 반문	문제1) 질문 → 대답 문제2) 질문 → 대답 → 반문	
수수께끼의 내용	사시사철 푸른나무	○	○	○	○	○	○	○	○
	동산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무성함	×	○	○	○	○	○	○	○
수수께끼 승리자	소별왕	대별왕	대별왕	소별왕	비김	소별왕	소별왕	소별왕	
결과	천지왕이 꽃가꾸기 내기 지지	소별왕의 꽃가꾸기 내기 제안	소별왕의 꽃가꾸기 내기 제안	대별왕의 꽃가꾸기 내기 제안	소별왕의 꽃가꾸기 내기 제안	소별왕의 이승차지	소별왕의 꽃가꾸기 내기 제안	극락세계 구경	

위 [표-5]와 같이 수수께끼를 제안하는 사람, 수수께끼의 주제 및 구조는 큰

차이가 없다. 처음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 승리한 사람, 수수께끼 내기가 무엇을 위한 내기인가는 채록본에 따라 달라 착종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수수께끼 내기담은 문제 유형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제의 유형이 변형되어 나타남에 따라 수수께끼가 단순한 ‘말놀이’가 되어 기능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대표적 유형이 나타난 <정주병본>과 <이무생본>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정주병본>

(첫 번째 문제)

대별왕 : 어떤 나무(木)은 주야평생(晝夜平生) 썩(葉)이 아니 지곡, 어떤 나무는 잎이 지느니? (어떤 나무는 밤낮으로 평생 잎이 지지 않고 어떤 나무는 잎이 지느냐?)

소별왕 : 오곡(五穀)이라 덩들막이 즈른 나무 주야평생 잎이 아니 지고, 오곡이라 계구린 나무 주야평생 잎이 지웁네다. (오곡 중에 짧은 나무는 잎이 지지 않고, 오곡중에 속이 빈 나무는 밤낮으로 평생동안 잎이 집니다.)

대별왕 : 모른 말을 말라. 청대(靑竹) 7대는도 7디7디 구리여도 청댓 썩(葉)이 아니 진다. (모르는 말 하지 말아라. 청대, 갈대는 마디마디가 비어 있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

대별왕 : 어떤 일로 동산엿 풀은도 메가 줄라지고 굴렁엿 풀은도 메가 질어지느냐? (어떤 일로 동산에 풀은 모종이 짧아지고, 구렁의 풀은 모종이 길어지느냐?)

소별왕 : 이 삼 스월(四月) 봄 셋비가 오더니 동산엿 흙(土)은 굴렁테레 가난 동산엿 풀메가 줄라지고, 굴렁엿풀은 메가 질어집네다. (이월 삼월 사월 봄의 동풍에 실려 오는 비가 오더니 동산에 흙은 구렁으로 가니 동산의 풀 모종이 짧아지고, 구렁의 풀 모종은 길어집니다.)

대별왕 : 모른 말을 말라. 어떤 일로 인간 사람은 머리년도 질어지고 발등엿 털은 썩르느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일로 인간의 머리카락은 잘 자라고 발등의 털은 짧느냐?)

<이무생본>

(첫 번째 문제)

소별왕 : 쪽이 옴은 낭기 저실이영 〇름이영 썩이 삼네까? 쪽구린 낭기 저실이영 〇름이영 썩이 삼네까? (쪽이 여문 나무는 겨울과 여름에 잎이 납니까? 쪽이



- 빈 나무가 겨울과 여름에 잎이 납니까?)
- 대별왕 : 어디 지영호여진댄 말이나? 속이 옴아사 저실이영 ㄴ름이영 ㅅ이 산다. (어디 그렇게 하느냐? 속이 여물어야 겨울과 여름에 잎이 난다.)
- 소별왕 : 계란, 무사 텃ㅅ작은 속이 구리여도 저실이영 ㄴ름이영 ㅅ이 퍼렇게 ㄹ음네까 성님 예속 지여수다. (그러면 왜 대나무는 속이 비어도 겨울과 여름여 잎이 ㅍ랴게 ㄹ습니까? 형님, 수수께끼 내기에 ㄼ습니다.)
- (두 번째 문제)
- 소별왕 : ㄹ은 굴형에가 풀이 ㄹ게 ㄹ네까 높은 동산이가 풀이 ㄹ게 ㄹ네까? (ㄹ은 구렁에 풀이 많이 ㄹ니까? 높은 동산에 풀이 많이 ㄹ니까?)
- 대별왕 : 어디, 높은 동산이 풀이 ㄹ게 ㄹ단 말이나. ㄹ은 굴형에가 풀이 ㄹ게 ㄹ지. (어디 높은 동산에서 풀이 ㄹ게 ㄹ느냐? ㄹ은 구렁에서 풀이 ㄹ게 ㄹ다.)
- 소별왕 : 계란, 무사 사름 머리엔 ㄹ아도 머리턱이 거멨케 ㄹ고 ㄹ등엔 ㄹ력 혼점도 안ㄹ수가? (그러면 왜 사람 머리는 높은 곳에 있어도 머리털은 ㄹ맡게 ㄹ고 ㄹ등에는 털이 하나도 ㄹ지 ㄹ습니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주병본>과 <이무생본>은 문제 유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정주병본>은 ‘어떤~’ 라는 개방형 문제를 내어 대답자가 질문에 알맞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여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무생본>은 두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답하라는 선택형 문제를 넘에 따라 수수께끼 내기가 아니라 단순한 ‘말놀이’가 되고 만다.

문제 유형이 개방형으로 나타난 본은 <고대중본>, <이중춘본>, <강일생본>이다. 선택형으로 나타나는 본은 <문정봉본>, <박봉춘본><sup>66)</sup>으로 숫자적으로는 <정주병본> 문제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 문제 유형이 수수께끼에 적합한 내용임에도 승리자가 소별왕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연 과정에서의 변형으로 여겨진다. 이런 변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구연자의 기억상의 오류로 보인다. 구연자들은 제안자인 소별왕이 문제를 먼저 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던 ‘질문—대답—반론—승리자 결정’의 구조에 끼워 맞춘 것 같다. <고대중

---

66) <박봉춘본>은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왜 동백나무 잎은 겨울이 들어도 떨어지지 아니합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소별왕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대별왕은 그 현상에 알맞은 상황만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박봉춘본>에 나타나는 수수께끼는 개방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분류하였다.

본>은 대별왕이 승리했다는 결과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소별왕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대답—반론—대답—승리자 결정’의 구조를 통해 대별왕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소별왕이 승리하는 본은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승리해도 다시 자신이 꽃 가꾸기 내기를 제안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착종이 심한 수수께끼 내기에서는 대별왕이 승리자로 나타나는 <정주병본>, <고대중본>이 신화의 내용과 모순 되지 않으며, 지혜 내기라는 신화적 의미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단락은 모든 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꽃 가꾸기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기로 한다. 대별왕 꽃은 가지마다 만발하게 피어나지만 소별왕의 점점 꽃은 시들어간다. 이를 본 소별왕은 형에게 잠을 자자고 한다. 대별왕이 아무 욕심 없이 깊은 잠을 자는 사이 소별왕은 대별왕의 꽃과 자신의 꽃을 바꿔치기 한다. 그 결과 소별왕은 바라던 대로 이승을 차지하고, 저승은 대별왕이 차지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승은 도둑, 살인, 간음, 역적이 많은 혼란한 곳이 되고, 저승은 공정한 곳이 된다.

설룬 나 성님아, 우리 꽃번성 잘 흐는 자(者)랑은 이성법 마련허곡, 꽃번성 못 허는 자랑은 저성법 마련협주, 은동이에 늦동이 수습꽃가의 꽃썰 디리난, 대별왕은 꽃은 불휘(뿌리)는 웨빨리고 가지는 스만팔천(四萬八千) 가지 웨고, 소별왕은 꽃은 보난, 불휘는 스만팔천 불휘 웨고 가지는 웨가지가 웨난에, 소별왕 곁는 말이, 우리 성제는 예숙 지켜지시난 즘자기나 마련협주, 허난에. 소왕, 대별왕은 속눈도 곱고, 곁눈도 지폰 즘을 자고, 소별왕은 곁눈은 곱아뵈 속눈은 띄언에 대별왕 앞의 꽃은 소별왕 앞테레(앞으로) 소별왕 앞의 꽃은 대별왕 앞테레 갖다놓완, 설룬 나 성님아~ 두둑이 든 듯 힘네다. 일어난 보난 꽃을 바꿨구나.(바꿨구나) <한생소본><sup>67)</sup>

「설룬 아시 금시상법 지녀서 살기랑 살라마는 금시상법은 배에는 수적(水賊)도 많흐고 므른되는 강적도 많흐고 유부녀 통간(通姦) 간부(姦夫) 갈런 살린살이 많흐리라. 저승법은 주년이라. 참실곶은 법일러라. 이수훈장 법일러라. <고대중본>

67) 문무병, 제주도 큰굿 자료(제주 : 제주도·제주전통문화, 2001). 이하 인용은 같은 책이므로 <한생소본>처럼 자료의 이름만 적기로 한다.

<박봉춘본>에서는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겨 이승을 다스리게 된다. 차지한다. 소별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하여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복과 녹을 마련하고, 선악을 구별하여 인간 세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 본에서만 특이하게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 이 본에서 소별왕은 일종의 트릭스터(Trickster)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자연적 상태에서 문화적 상태로 이행하는 우주적 비밀을 인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인간 사회의 혼돈을 마련했으면서도 자연의 질서를 정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sup>68)</sup>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실리와 직결되는 신이 되므로 승양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문정봉본>에서는 천지왕이 대응전으로 가서 꽃사발을 나누어주고 수보살에게 잘 감시하라고 하지만 소별왕은 대별왕이 잠을 자고, 수보살이 한눈 파는 사이 꽃을 바꿔치기 한다. 천지왕이 소별왕에게 이승의 혼란을 이야기하며 소별왕은 이승을 다스리고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별왕이 화려한 치세로 인간 세상에 강림하는 모습을 서술하지만 목민관이 행차하는 모습을 묘사했을 뿐 강림한 소별왕이 어떻게 이승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박봉춘본>처럼 소별왕이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J단락은 대별왕이 이승의 혼란을 정리해주는 활약이 나타나며 <강일생본>, <이중춘본>, <이무생본>에서만 나타난다. <강일생본>에서는 소별왕이 이승의 혼란한 모습을 보고 대별왕에게 다스리는 곳을 바꾸자고 한다. 대별왕은 다시 바꿀 수 없다며 거절을 하고, 이승의 혼란을 정리해 준다. 이승은 해와 달은 두 개씩 떠 있어 백성들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 나무, 풀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말을 하여 시끄러웠다. 사람과 귀신이 이승에서 같이 살아 구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대별왕은 커다란 활로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쏘아 그 수를 조정한다. 후추, 송피(松

---

68) 김현선, 앞의 논문, 19쪽.

皮)가루 닳 말 닳 되를 하늘에 뿌리니 짐승, 나무, 풀들은 혀가 굳어져 말을 못 하게 된다. 저울로 재어보아 백 근이 되는 것은 사람, 백 근이 되지 않은 것은 귀신으로 구분하여 귀신을 저승으로 보낸다. <이무생본>에서는 천지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도둑도 많고, 나쁜 일도 많게 되었다며 구연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중춘본>에서는 대별왕이 저승에 가서 이승을 살펴보니 혼란하기에 스스로 혼란을 정리해준다.

프로프의 민담형태론이나 이를 무가에 변형 적용한 서대석의 무가분석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이야기들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단락이 더해지거나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순서만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sup>69)</sup> 그러나 「천지왕본풀이」는 위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채록본에 따라 몇 개의 서사 단락들이 탈락되거나 부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거나 행위의 결과가 달라지는 등 복잡한 양상이 보여 순차성이 전혀 유지되고 있지 않다.

「천지왕본풀이」가 이렇게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천지왕본풀이」의 특성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는 본풀이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본풀이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sup>70)</sup> 「초감제」의 소제차인 「베포도업침」에서 같이 불리어지므로 본풀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모든 곳거리에서 불리는 「베포도업침」과는 달리 「천지왕본풀이」는 큰곳에서만 불리어지므로 구연되는 횟수가 적어 구연자들의 기억상의 오류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sup>71)</sup> 「천지왕본풀이」는 우리나라의 창세신화 중 유일하게 지금도 곳거리에서 불리고 있지

69) 이재열, “창세신화 천지왕무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48쪽.

70) 다른 본풀이들은 전체 곳 속에서 같은 이름의 제차를 가지고 있다. 모든 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소제차가 있다. ① 공선가선 ② 집안연유담음 ③ 들어가는 말미 ④ 풀이류 ⑤ 본풀이 ⑥ 맞이 의식 ⑦ 메여들어석살림 ⑧ 놀이 ⑨ 비넘 ⑩ 산받아분부사됨 ⑪ 주잔님김 예를 들어 「초공본풀이」는 「초공제」의 다섯 번째 제차에서 불린다.

71) 김현선은 앞의 논문 243쪽에도 현재(2003) 제주도에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구송하는 심방은 김만보, 이중춘, 양창보 심방 등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만 이런 특성들로 인하여 다른 무가들에 비해서 전승체계가 취약하다. 앞으로 「천지왕본풀이」는 단락간의 착종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3. 유형

앞에서 「천지왕본풀이」 자료 8편을 대상으로 서사단락을 살펴보았다. 자료에 따라 서사단락의 유무를 알기 쉽게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6] 자료의 서사단락 유무 비교

단락 자료명	A	B	C	D	E	F	G	H	I	J
<강일생본>	○	×	×	×	×	×	○	○	○	○
<고대중본>	○	○	×	×	×	×	○	○	○	×
<이중중본>	○	○	○	○	○	×	○	○	○	○
<한생소본>	○	○	○	○	○	○	○	○	○	×
<정주병본>	○	○	○	○	○	○	○	○	○	×
<박봉중본>	○	○	○	○	○	○	○	○	○	×
<이무생본>	○	○	○	○	○	○	○	○	○	○
<문정봉본>	○	○	○	○	○	○	○	○	○	×

위 [표-6]를 보면 A, G, H, I단락은 모든 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나, 나머지 단락은 나타나는 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도 있어 자료들 간의 차이가 심한 편임을 알 수 있다. A, G, H, I단락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복수로 뜬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하고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승차지 경쟁이 나타난다. 이 단락들은 「천지왕본풀이」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 A와 G, I 단락은 세부 화소들의 탈락이 심하지 않으나 H 단락은 세부 화소들의 탈락, 도치, 첨가가 되는 등 그 변이 양상이 심하다. 서사단락 B와 C단락, H와 I단락의 순서가 서로 도치되어 나타나지만 서사단락의

유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유형별로 분류할 때 모두 존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천지왕본풀이」는 단락의 탈락, 첨가, 의미의 변질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묶을 수 있다.

### 가. 기본형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의 전 각편을 포괄하는 서사단락은 9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다. 위 결과를 토대로 모든 자료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단락들로 존재하는 단락들로 기본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7] 기본형

단락	내 용
A	혼합되었던 천지가 분리되면서 천지개벽이 됨.
B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합함.
C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함.
D	천지왕이 징표(박씨)와 함께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줌.
E	대별왕과 소별왕이 자라서 어머니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봄.
F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줄기를 타고 올라가 아버지를 만남.
G	대별왕과 소별왕이 복수로 존재하는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함.
H	대별왕과 소별왕은 서로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 수수께끼 내기를 함.
I	꽃 가꾸기 내기를 통하여 이승차지 내기를 하여 대별왕이 자는 사이에 소별왕이 꽃을 바꿔치기 하여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함.

기본형은 8편 중 3편인 <정주병본>, <문정봉본>, <한생소본>으로 J단락 <대별왕의 이승 혼란 해결담>이 없다. 이 유형은 구조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서사무가의 원래모습과 가까워 신화적 의미가 잘 드러난다. 이 서사무가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경쟁을 통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내력이 담긴 신화이다. 그러므로 혼란한 이승을 해결하는 부분이 첨가 되지 않아도 신화 본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나. 변이형 I (탈락형)

기본형 중에서 일정 단락들이 없는 것으로 <고대중본>, <강일생본>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춘본>도 아버지를 찾는 내용이 탈락되어 있지만 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장면은 있고, 아버지를 찾아 박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단락만 탈락되어 있다. 박씨의 기능이 아버지와 만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탈락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탈락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강일생본>에서는 <천지왕결연담>, <수명장자 징치담>, <부친 탐색담>이 빠져 있으며, <고대중본>에서는 <수명장자 징치담>, <부친 탐색담>이 빠져 있다. 이 유형에서 빠진 서사단락은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서사단락들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이 유형은 서사성이 풍부하지 않고 신화적 의미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

## 다. 변이형 II (첨가형)

기본형에 대별왕이 이승의 큰 혼란을 해결해주는 J단락이 첨가된 내용이다. 8편의 자료 중 <강일생본>, <이중춘본>, <이무생본>이 J단락이 첨가되어 있으나 <강일생본>은 탈락된 부분이 5개 단락이나 되어 탈락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중춘본>도 아버지를 찾아 박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부분 탈락으로 보고, 확실하게 이승의 혼란을 해결해 주는 대별왕의 모습이 나타난 이 부분을 중요 변이로 보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 속하는 본은 <이중춘본>, <이무생본>이 된다. 이 부분이 없어도 전개상 무리가 없으나 마음씨 착한 대별왕의 모습에서 인간존중 사상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본과는 다르게 혼란을 정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재미가 더해지고 있다.

## 라. 변이형 III (기능 변질형)

<박봉춘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박봉춘본>은 J단락을 제외한 모든 서사 단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박봉춘본>을 기본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변이형으로 분류한 것은 소별왕이 아버지가 징치하는데 실패한 수명장자도 징치하고, 인간의 복과 녹을 마련하여 이승을 잘 다스리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전승진단의 또 다른 의식을 찾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자료이지만 신화적 의미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의 신화적 모습이 변질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들 각 유형이 포함하는 이야기 단락군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명명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형 : A~I (J단락 제외) (3편)
- 변이형 I (탈락형) : 천지왕 결연담(강일생본만), 수명장자 징치담, 대별왕 소별왕의 부친 탐색담 탈락형 (B, C, D, E, F단락 탈락) (2편)
- 변이형 II (첨가형) : 이승 혼란 정리담 첨가형 (J단락 첨가) (2편)
- 변이형 III (기능변질형) : 소별왕의 긍정적 역할(1편)

이상에서 9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내용 단락을 살핀 결과 10개의 포괄적인 공통 단락으로 구성된다. 등장인물과 서사 진행으로 미루어 보아 「천지왕본풀이」는 자료들 간의 차이가 심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10개의 서사단락 중 A, G, H, I단락만이 모든 채록본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단락들로 세부 화소가 도치, 탈락, 첨가 되어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본형은 8편 중 3편으로 모든 서사단락을 갖춘 유형이며, 변이형 I은 탈락형으로 <수명장자징치담>, <부친탐색담>이 탈락된 유형이 2편, 변이형 II는 첨가형으로 <대별왕의 이승 혼란 정리담>이 첨가된 유형이 2편, 변이형 III는 기능 변질형으로 모든 서사단락은 갖추어졌으나 소별왕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유형 1편이 있다. <대별왕의 이승 혼란 정리담>은 대별왕의 지혜와 인간됨, 영웅성을 드러내는 단락으로, 재미가 더해지나 이 단락을 빼도 서사적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 기능 변질형은 소별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서사단락은 갖추었으나, 소별왕이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짐에 따라 신화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 Ⅲ. 구조와 의미

작품의 구조를 분석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시간 순서에 따라 계기적(繼起的)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의 내용을 일정한 의미 단위로 분절하는 일이다. 이 장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을 단락별로 정리하여 각 단락의 단락소를 추출하고 다음 순차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들 단락소들이 서로 대립적으로 순환 반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작품의 구조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순차 구조와 의미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는 혼합되었던 천지가 분리되어 산과 물, 별들이 생겨나는 천지개벽담, 천지왕이 지상국 부인과 혼인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이세를 잉태시키는 부모 결혼담, 천지왕이 악행을 일삼는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천지왕 업적담, 대별왕과 소별왕이 천지왕을 찾기 위해 하늘로 떠나는 부친 탐색담, 두 개씩 생겨난 해와 달 때문에 고통 받는 백성들을 위해 해와 달을 조정하여 백성들이 살기 편하게 해주는 공적담, 이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내기를 하는 형제 경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스릴 공간을 정하는 신직 획득담으로 마무리 된다.

「천지왕본풀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베포도업침」부분으로 혼합되었던 천지가 분리되어 세상 만물이 생겨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천지왕이 총명부인을 만나 결혼하여 세상을 다스릴 이세(二世)를 잉태하고 악한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부친을 찾아 하늘로 오르고, 경쟁을 통하여 각각 저승과 이성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지

왕본풀이」는 서사적 긴밀성이 부족하여 삽화적 구성을 띠고 있고, 등장인물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에 없다. 내용이 세 부분으로 분절되기는 하지만 「천지왕본풀이」는 각 사건에 따른 시간적인 순서와 인과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구조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서사단락의 기본형을 가지고 내용 단락별로 세분화시켜 살펴보겠다. 다음에 제시된 「천지왕본풀이」의 순차적 내용 단락 중 ‘가)~사)’는 대단락을, ‘a~g’는 소단락을 나타낸 기호이다. 소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대단락의 핵심 내용을 의미하는 제목을 붙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천지개벽담

- a. 맞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금이 나면서 분리됨.
- b. 하늘과 땅에서 이슬이 생겨나 합수됨.
- c. 산과 물이 생겨남.
- d. 사방에서 여러 별들이 뜬.
- e.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씩 생김.
- f.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고 문화가 발생됨.

#### 나) 천지왕 결연담

- a.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옴.
- b. 합궁일(合宮日)을 받아 결연함.

#### 다) 천지왕 업적담(수명 장자 징치)

- a. 천지왕을 대접하기 위해 총명부인은 수명장자 집에 가서 쌀을 꺾음.
- b. 수명장자가 쌀에 모래를 섞어서 꺾 주자 총명부인은 그 쌀로 천지왕에게 대접함.
- c. 천지왕은 첫 손가락부터 모래가 씹히자 총명부인에게 영문을 물어봄.
- d. 총명부인이 수명장자의 악행을 이야기함.
- e.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함.

**라) 부친 탐색담**

- a. 천지왕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징표를 준 후 하늘로 올라감.
- b. 홀로 남겨진 총명부인은 쌍둥이 형제를 낳아 ‘대별왕·소별왕’이라고 이름을 지음.
- c.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머니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음.
- d.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씨를 심어 그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

**마) 공적담**

- a. 각각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겪음.
- b. 대별왕 소별왕은 커다란 활로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기고 쏘.

**바) 경쟁담**

- a. 천지왕이 대별왕에게 이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에게 저승을 다스리라고 함.
- b. 소별왕은 수수께끼 내기에 이긴 자가 이승을 다스리자고 제안하여 형제가 수수께끼 내기를 한 결과 대별왕이 이김.
- c. 소별왕이 다시 꽃 가꾸기 내기를 제안함. 대별왕의 꽃은 활짝 피고 소별왕의 꽃은 시들어 감.
- d.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잠을 자자고 하여 대별왕이 잠자는 사이에 소별왕이 꽃을 바꿔치기 함.

**사) 신직획득담**

- a.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이승을 다스리게 됨.

지금까지 「천지왕본풀이」를 천지개벽과, 대별왕과 소별왕의 탄생과 신직획득에 따른 순차 구조를 살펴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크게 가) 천지개벽담, 나) 천지왕 결연담~다) 천지왕 업적담, 라) 부친 탐색담~마) 형제경쟁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순차 구조란 작품의 내용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한 구조로 「천지왕본풀이」는 ‘천지개벽-천지왕의 결연-천지왕 업적-부친 탐색 공적-경쟁-신직 획득’의 순서를 지니고 있음을 앞에서 설명해 보았다. 순차 구조 순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천지개벽담

태초의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없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고, 세상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도 없는 암흑의 상태였다. 이런 하늘과 땅이 스스로 열린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중국의 음양 오행사상과 십간십이지 체계에 맞추어서 하늘과 땅, 사람이 생겨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는 송대의 소옹(邵雍)의 황극경세편(皇極經世篇)의 ‘천개어자 지개어축 인생어인(天開於子 地開於丑 人生於寅)’의 내용과 부합된다. 천지가 개벽하는 모습을 마치 새가 머리를 들고 울면서 날갯짓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각 방향을 강조하거나 천황(天皇)·지황(地皇)·인황(人皇)담으로 세분하는 방식은 중국의 우주론적 체계와 일치하는 면이 있으나,<sup>72)</sup> 동서남북의 방위로의 천지의 개벽에 새의 형상을 비유한 점은 제주도 신화 향유층만의 독자적 사유로 생각된다.<sup>73)</sup>

하늘과 땅에서 이슬이 내려 음양의 상통으로 인하여 산과 물이 생기고, 온갖 만물이 생긴다. 하늘과 땅에서 이슬이 내렸다는 것은 천부지모의 관념과 인간의 성행위에 의한 자녀 출생의 원리를 투영한 표현으로서 천부지모가 포옹하듯이 만물을 낳았다는 표현일 것이다.<sup>74)</sup> 이는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연하는 천부지모의 관념으로 이어져 대별왕과 소별왕의 탄생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슬은 생생력(生生力)을 지닌 액체, 즉 물의 표상이다. 물의 창조적 힘으로 인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만물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지 않고 자체의 생성원리를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물에 의한 우주 개벽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자신의 대응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질생성론, 즉 인류가 물에서 태어났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72) 一說 天地初界 以一日作鷄 七日作人— 『太平御覽』 제 30권

73) 김현선, 앞의 책, 96쪽.

74) 현용준, 앞의 책, 236쪽.

다.<sup>75)</sup>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파괴와 정화의 큰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성시된다. 76) 물이 생생력(生生力을) 상징함을 나타내는 신화는 많다.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의 유화부인은 해모수와 결연해서 주몽을 낳는다. 유화부인은 천부지모의 관념으로 봤을 때 평범한 지상녀이지만 유화부인은 하백의 딸이다. 유화부인은 ‘물’의 신의 표상으로 생산력을 지닌 존재이다. 해모수와 유화부인 사이에 태어난 주몽은 더욱 신성한 존재가 되며, 유화부인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신모(神母)가 된다. 이 외에도 박혁거세의 부인 알영은 알영정에서 나온 계룡의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월신(月神), 수신(水神)이 된다. 기후를 조절하는 능력을 지닌 하늘—태양의 후손인 혁거세와 물—대지를 상징하는 알영의 결합은 풍요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77)</sup> 서사무가 바리 공주에서 바리 공주가 이계(異界)에서 약수를 구해와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리는 것은 물이 창조력, 생생력을 상징함을 뜻한다. 서양의 대표신화인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물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미(美)의 신이 된다.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하여 다나에와 결합하여 낳은 아들인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처치하는 등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웅이 된다. 아프로디테가 신이 되고, 페르세우스가 영웅이 되는 것 모두 물이 생생력을 상징함을 나타내는 예이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홍수신화의 일면으로 보아서는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물에 대한 끊임없는 숭배는 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달에 대한 숭배를 가지고 왔다. 또한 달의 성질을 닮은 곰, 지렁이, 거북이 등의 달동물(lunar animal)까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나) 천지왕 결연담

75) M. Eliade, 이은봉역, 성과 속(서울 : 학민사, 1983), 100쪽.

76) 최운식, 민속적인 삶의 의미(서울 : 한울, 1993), 48쪽.

77) 최운식, 한국인의 삶과 문화(서울 : 보고사, 2006), 282쪽.

천지왕 결연담은 처음으로 신과 인간이 만나 관계를 맺는 화소이다. 사람이 초자연적 신격의 존재와 혼인하는 인신교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설화의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sup>78)</sup> 인신교혼의 대상은 선녀, 선인, 신, 사령 등으로 이들은 하늘, 산 속, 땅 속, 물 속 등에 근원을 둔다. 이 곳은 인간들이 생활하는 현실계인 지상계와는 구별되는 성역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카오스의 변화 세계이다. 이러한 성역에 근원을 둔 선녀, 선인, 신, 사령 역시 카오스적 존재로 거룩한 존재·성화된 존재로 인정한다.<sup>79)</sup> 따라서 지상녀 총명부인과 천상신 천지왕의 결합은 신성혼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신성혼에 의해서 태어난 대별왕과 소별왕은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이러한 대별왕과 소별왕의 권위를 천지결연이라는 신화가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하늘-아버지, 땅-어머니’ 관념이 구체화·인간화되어 나타난다. 천부지모의 관념은 건국신화의 여러 시조들의 탄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결합을 남녀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신화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 다) 천지왕 업적담

수명장자는 천지가 개벽된 후에 인간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악이 횡행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인물로 하늘의 존재인 천지왕과 대립된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이유는 욕심과 비윤리성 때문이다. 수명장자는 부자이면 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고리대금을 통하여 더 큰 부를 축적하고자 욕심을 부린다. 아들, 딸 또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인물들이다. 본에 따라서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불효를 저지른다. 조상에 대한 불효는 유교적 사고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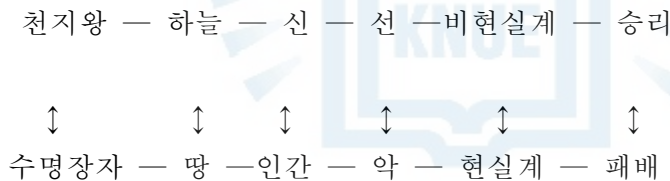
78) 최운식,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구조와 의미,” 한국 설화의 연구(서울 : 집문당, 1991), 312쪽.

79) 최운식, 위의 논문, 313쪽.

무속적인 사고에 더 연관이 있다. 무속의 현실주의적 사고에서는 신을 모시고, 신에게 소원을 비는 곳에서 조상신은 아주 중요하다. 포괄적인 신보다는 구체적인 신, 더 나아가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신이 더 영험 있고, 더 극진히 모셔진다.<sup>80)</sup> 조상에 대한 불효를 저지르는 수명장자가 무속을 대표하는 신격인 천지왕에게 징치를 당한 것은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무속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수명장자는 불로 징치된다. 불은 더럽고 속(俗된) 것을 모두 태워 버리고, 성(聖)의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81)</sup> 수명장자가 살고 있는 지상계는 불행이 존재하는 속된 세계이다. 천지왕은 현실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불행의 원인이 되는 수명장자를 징치함으로써 지상계를 정화하여 카오스(Chaos)의 세계, 즉 성(聖)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은 신의 법도가 인간에게 질서로 구현됨을 의미한다.

수명장자와 천지왕의 대립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명장자는 악의 존재, 부정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은 하늘의 질서를 통한 땅의 부정 제거로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부정의 상징은 곳을 통해서 정화되는데 수명장자가 징치되는 것은 이런 의미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80) 김남연, “한국창세신화와 유형담의 전승과 변이—장자징치담과 천지결연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7쪽.

81) 최운식, 민속적인 삶의 의미(서울 : 한울, 1993), 37쪽.



## 라) 부친탐색담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란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열다섯 살이 되어 서당에 갔다가 주변 사람들의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놀림을 받고 어머니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 나이는 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열다섯 살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의식의 성장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천지왕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들에게 신직을 부여하는데, 이는 자의식이 성장한 나이가 되면 어떠한 일에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를 찾기 전에는 평범한 인간들에게도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박의 덩굴 타고 하늘에 오름으로써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신성을 깨닫게 된다.

각 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징표는 박씨이다. 박은 다산(多産)의 식물로, 예로부터 대지의 생생력(生生力) 상징으로 보았고, 특히 그 열매는 조류(鳥類)의 알과 함께 생명의 근원 상징으로 보아 신성시하기도 하였다.<sup>82)</sup> 신라의 건국시조인 혁거세도 박 모양의 자줏빛 알에서 태어난다.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首露王)이나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朱蒙) 역시 알에서 태어난다. 신화에서 알은 생명의 근원처(根源處)를 상징하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sup>83)</sup> 이런 건국시조들의 신이(神異)한 출생은 건국시조들의 신성성을 더욱 드러내게 한다. 천지왕이 박씨를 징표로 주는 의미는 앞으로 태어날 대별왕과 소별왕이 신의 자식으로 신이한 능력을 지녔으며, 중요한 신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을 암시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박씨를 심자 박의 덩굴이 하늘로 뻗는다. 곧 박의 덩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우주나무라 할 수 있겠다. 제주도에서는 곳을 할 때 먼저 마당에 큰 대를 세우고 큰 대와 집 안의 제상 사이를 긴 무명으로 연결시켜 놓고 시작한다. 여기에서 마당에 큰 대를 높이 세

82) 최운식, 앞의 책, 47쪽.

83) 최운식, 한국인의 삶과 문화(서울 : 보고사, 2006), 282쪽.

우고 그것과 집안의 제상을 연결시킨 무명을 ‘드리’라 하여 이것을 신령의 통로라고 관념하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한 일이다. 이 무명(드리)이 신들의 통로라면 큰 대는 신들이 강림하는 길이 된다. 신들은 천상에 존재하고 청신을 하면 큰 대에 통하는 지상으로 강하하는 것이다. 즉, 큰 대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목과 같은 것이어서 신들은 이 우주목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강하하고 무명(드리)를 통하여 제단으로 오는 셈이 된다.<sup>84)</sup>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의 덩굴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은 하늘과 땅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절된 곳이 아니라 전승집단의 의식이 반영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씨를 타고 오름으로써 현실의 자신을 폐기하고 신이한 능력을 지닌 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박씨를 타고 오르는 행위는 입사식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성년식(成年式, 入社式, initiation)을 갖는데, 이것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육체적·정신적 훈련을 받은 다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의식이다. 성년식의 형식이나 절차는 민족에 따라 다르나, ‘절연(絶縁)—시련(試鍊)—복귀(復歸)’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의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격리(隔離)하여 일정한 기간을 또래 아이들과 함께 수용한 다음, 육체적·정신적 시련을 가하고 정신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하여 그가 성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게 한 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는데, 그가 마을로 돌아온 뒤에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成人)으로 대우한다. 이것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상황으로 발전하는 데 거쳐야 하는 의식 절차이기도 하다.<sup>85)</sup>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의 덩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초월자의 도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신성이 내재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서사무가 주인공들이 초월자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84)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서울 : 집문당, 1986), 265쪽.

85) 최운식, 앞의 책, 30쪽.

## 마) 공적담

대별왕과 소별왕은 하늘에 오름으로써 내재된 신성을 깨닫게 된다. 신성의 발현은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천 근 활, 백 근 화살로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다. 커다란 활로 해와 달을 조정하는 것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거인신적인 면모<sup>86)</sup>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은 인간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천 근 활과 백 근 화살의 엄청난 무게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말 물론 풀입사리도 낮이 쫓아 죽어가고 밤인 곳아 죽었다. 그 말 굴으난, 천지왕이 천근(千斤)활, 백근(百斤) 활(矢)을 내여주난, 대소별왕이 인간에 도느려그네덜 -(중략)- 앞의(앞에) 오는 해 하나 생겨두고, 뒤에 오는 둘 하나 생겨두고, 뒤에 오는 둘 하나썩안 서해와당(서해바다)에 즈질허난에, <한생소본>

대소별왕이 전근들이 활을 묵고 백근들이 활을 무어 어니동두 짓놀려 월광 둘이 뜨고올때 앞이 월광은 생기고 뒤에 월광 맞쳐다가 동이유왕(東海龍王) 진두밭제호고 일광들이 뜨고올 때 앞이 일광은 생기고 뒤에 일광은 맞쳐다가 서이와당 혼하늘 해도 하나 혼 하늘 둘도 하나 마련허니 일광도 도업입내다. 월일광 도업으로 제일이니 혼하늘 해 하나 혼 하늘 둘 하나 마련힙내다. <고대중본>

다시 천활 굽어보난, 밤인 천명 곳아 죽고 낮인 천명 쫓아 죽나. 천근(千斤) 들어 활(弓)이여 백근(百斤) 들어 활(矢)이여 오리 동동 조금 울립테다. 초 시름 나아시난 월광(月光)이 뜨고 온다. 앞의 일광 생겨두고 뒤에 일광 쏘아다 아방국 진도밭제 허니 하늘은 아방의 법, 땅은 어명의 법이여. <이중춘본>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을 조정하는 이유는 복수의 해와 달 때문에 백성들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해와 달이 조정된다는 것은 한발과 더위, 홍수와 추위를 미리 예방하고 풍요를

86) 김현선, 앞의 논문, 13쪽. 그의 해석은 ‘천 근 활과 백 근 화살’이라는 숫자적인 의미에 연연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곡물재배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sup>87)</sup>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을 조정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에 중요한 공적이 된다. 또, 이 행위는 신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살피 준다는 전승집단의 의식의 표현으로 보인다.

### 라) 경쟁담

천지왕은 대별왕은 이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라고 한다. 하지만 소별왕은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대별왕에게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자고 제안한다. 대별왕이 이에 응하여 형제는 내기를 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수수께끼 내기와 꽃 가꾸기 내기를 한다. 본토의 창세신화에도 세상을 창조한 미륵과 미륵의 세월을 뺏고자 하는 석가의 경쟁이 나타난다. 미륵과 석가는 금병에 줄 매달아 끊어지지 않기, 여름강 얼리기, 달갈로 낮 가리기 등으로 내기를 한다. 미륵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자 석가는 잠자면서 꽃을 피우자고 한다. 본토의 창세신화에 없는 수수께끼 내기는 「천지왕본풀이」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신화에서도 수수께끼 내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며 통과의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유리왕 설화에서도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면서 예씨부인 뱃속에 있는 유리에게 일곱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아래에 숨겨둔 표적을 찾아서 얻으면 자신의 아들이라는 수수께끼를 남기고 떠난다. 유리가 자라, 참새를 맞추려다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는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욕을 듣는다. 유리는 부끄러워 어머니께 아버지의 존재를 묻고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듣는다. 유리는 일곱모가 난 돌을 찾기 위해 온 산골짜기를 헤매고 다니지만 찾지를 못한다. 어느 날 유리가 자기 집 주춧돌과 기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듯해서 살펴보니 그 주춧돌이 일곱모로 깎

87) 현용준, “월명사 도술가 배경설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서울 : 집문당, 1992), 424~445쪽.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한국신화의 연구(서울 : 집문당, 2001), 238~241쪽.

여져 있었고, 그 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다름 아닌 소나무 기둥이었다. 우리는 그 밑을 파헤쳐 부러진 칼을 찾고 아버지를 만나, 왕이 된다.

그리스·로마신화의 오이디푸스는 자라서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그 과정에서 ‘부은 밭’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혜로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맞추어 어려움 없이 테베의 왕이 된다. 이처럼 수수께끼는 지혜의 상징이며, 신성성을 증명받는 통과의례의 의미를 지닌다.

수수께끼는 은유를 써서 대상을 정의하는 언어표현법<sup>88)</sup>으로 그 답이 기지와 재치를 요구한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소별왕은 대별왕의 물음에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대답을 하였고 대별왕은 소별왕에게 다른 상황을 이야기함으로 써 이치의 빈곳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대별왕은 대지의 풀과 사람의 머리카락을 동일시하여 문제를 내지만 소별왕은 그 문제의 본질을 알아맞히지 못한다. 이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지 않다<sup>89)</sup>는 대별왕의 논리를 소별왕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각 채록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일 알고 두 일 모르는 ~’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자연 현상을 주류인 한 가지 일로 보지 말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 예외 되는 일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수수께끼 문제가 생명의 번성을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의 원리를 내포한다. 수수께끼에서 승리한 대별왕은 생명의 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두 번째 내기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두 번째 내기는 꽃 가꾸기 내기이다. 형제는 만발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이 이성을 차지하기로 하고 꽃을 가꾸기 내기를 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꽃 가꾸기 내기에서 이기는 자가 이성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는 것은 이성은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신이 이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8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서울 : 일조각, 1971), 202쪽.

89) 조현철,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서울 : 한겨레출판, 2006), 305쪽.

담긴 것이다. 처음에 대별왕은 ‘번성꽃’을 피우고 소별왕은 ‘검뉴울꽃’을 피운다. ‘번성꽃’은 이름 그대로 활짝 핀 꽃이며 활짝 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생명들이 사는 이승을 다스리는 책임자는 대별왕임을 나타낸다. 동생의 ‘검뉴울꽃’은 시들어 가는 꽃, 즉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때문에 저승을 다스리기는 책임자는 소별왕이다. 하지만 소별왕은 그런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속임수를 써서 이승을 차지한다. 책임자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승은 혼란스럽고 속임수가 난무한 곳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 신화에서 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큰굿 제차에 속하는 본풀이 열 개 중 다섯 개의 신화에 ‘꽃’에 관한 화소가 나타난다.<sup>90)</sup> 그 중 「천지왕본풀이」와 「생불할망본풀이」는 꽃 가꾸기 내기를 통해서 책임자를 결정한다.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세 개의 신화에서는 서천꽃밭이 존재하며 죽은 사람을 살려 내거나, 사람을 죽일 때 꽃을 사용한다. 본토의 무속에서도 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국의 굿판에서는 굿장을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화(紙花)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1)</sup> 이뿐만 아니라 바리공주 무가, 구렁덩덩 신선비 등 여러 설화에서도 ‘꽃’화소는 중요한 화소로 등장한다.

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꽃이 지니는 특성 때문이다. 꽃은 피어났다가 서서히 죽어 가는 유한적 존재이지만 세대를 이어 다음의 재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생명인 씨를 잉태하는 무한 존재이다. 꽃은 식물생명의 근원상징물로 표상되어 왔다. 식물 삶의 체계로부터 인간 삶의 생명체계를 유추할 때, 인간생명과 직접 관련을 맺으며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꽃이 될 수밖에

90) 이수자, 위의 논문, 186쪽. 열 개의 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 「생불할망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맹감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문전본풀이」이다.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삼신할머니처럼 아이를 해산시키고 지켜주는 생불할망이 되기 위해 명진국따님 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꽃 가꾸기 시합을 한다. 번성꽃을 피운 명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이 되고 진 동해용왕따님애기는 구삼승할망이 되어 아이들에게 질병을 주고 목숨을 빼앗는 신이 된다.

91) 김남연, 앞의 논문, 27쪽.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면 꽃이란 인간생명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초언어(universal-meta-language)가 되는 셈이다.<sup>92)</sup>

변성하는 꽃은 인간의 삶(生)을, 그리고 시드는 꽃은 인간의 죽음(死)과 관련시키는 사고에는 우선 꽃이 인간의 생명 상징물이라는 것이 인식의 표현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꽃 가꾸기 내기가 이승 차지 내기에서 확실한 승리수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꽃과 인간 생명을 동일시하는 고대인의 사고관념이 나타나는 이유는 농경문화를 기초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마) 신직획득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 세상을 신의 세계인 하늘, 인간의 세계인 이승, 영혼의 세계인 저승으로 삼분(三分)된다. 이 신화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천지왕이 신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전승집단은 생성의 문제보다는 다스리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토의 창세신화에서는 미륵이 석가의 속임수 때문에 꽃 피우기 내기에서 져서 석가에게 자신의 세월을 내 준다. 그리하여 이승이 혼란하게 되었다며 이승의 혼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이승만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천지왕본풀이」는 이승과 성격적으로 대비된 저승공간을 상징하고 있어 본토의 창세신화보다 공간관이 더 확대되고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생과 사를 관장하는 공간을 다스리는 중요한 신직을 받는 이유는 천상의 존재인 천지왕의 자식으로 이미 신성이 내재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이 됨에 따라 신들 중에서도 높은 위계(位階)에 속한다.

제주도에서 굿을 할 때 신들을 청해서 모셔놓는 신자리(神席)를 중심으로 마루 위쪽 천장에 한두 척(尺) 떨어진 사방에 제붕(祭棚)을 달아매는데, 이를 당클이라 한다. 당클

---

92) 이수자, 앞의 논문, 198~199쪽.

은 신들의 사는 세계를 바로 곳하는 자리 위에 설치한 소우주(小宇宙)이며, 임시로 마련된 신계(神界)이며, 성소(聖所)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큰곳을 ‘4당클곳’이라 하는데 -(중략)- 4당클은 삼천천제석궁(三千天帝釋宮) 당클, 열두 시왕 당클, 문전·본향 당클, 마을·영신 당클이다. -(중략)- 제 1당클은 삼천천제석궁 당클이다. 여기는 하늘 옥황상제 이하 삼천 하늘의 신(天神)들을 지상에 내려오게 하여 임시로 모시고 있는 신궁이다. 삼천천제석궁은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천상의 세계다. 이 하늘 옥황에는 저승을 차지한 신 ‘대별왕’과 이승을 차지한 신 ‘소별왕’의 아버지 천지왕을 비롯하여 농경신 자청비의 남편 ‘상세경 문도령’ 그의 약혼녀 ‘서수암 따님아기’가 있고, 삼승할망, 무조삼형제, 서천 꽃밭의 이공 꽃감관과 그의 아들 ‘할락궁이’, ‘삼하늘 삼공알땅 주년국’의 삼공신 ‘마통이’와 ‘가문장아기’가 있다.<sup>93)</sup>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신은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 이외에도 제주도 무속신화의 일반본풀이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다. 신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평등 관계이나, 신을 청해 들일 때 먼저 불리는 순서가 더 높은 위계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은 먼저 불리어지므로 전승집단들은 대별왕과 소별왕을 높은 지위에 있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위계가 높은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 천지왕의 자식이며,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쌍둥이 형제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대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쌍둥이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시성을 띠지만, 성격이 다르므로 대립적인 두 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신화에서 창조신이 대별왕과 소별왕처럼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쌍둥이 모티프의 분포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sup>94)</sup> 「천지왕본풀이」에도 대별왕과 소별왕이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둘의 대립적 성격을 통하여 이승과 저승의 변별성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별왕의 끊임없는 도전

93) 문부병, “제주 토속신들의 역할과 기능,” 영주어문 2권(제주 : 영주어문학회, 2002), 77~78쪽.

94)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9쪽.



때문과 사술(詐術)때문에 지혜롭고,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명력을 주관할 줄 아는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승은 혼란한 곳이 되고 대별왕이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는 저승은 이승과 대비되어 더욱 청명한 곳이 된다. 이렇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쌍둥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대표되는 두 힘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별왕	- 선 -	패배 -	저승 -	질서 -	사(死)
↓	↓	↓	↓	↓	↓
소별왕	- 악 -	승리 -	이승 -	무질서 -	생(生)

이처럼, 대별왕과 소별왕은 저승과 이승을 대표하는 신격으로 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런 대립 구조는 제주 지역의 오등동 당본풀이<sup>95)</sup>(오등본향)에서는 변형되어 나타나 그 양상이 흥미롭다.

- a. 천지왕의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나록(밭에서 기르는 벼)을 보고 호기심에 씹어 먹었다.
- b. 하늘로 올라가니 아버지가 인간 백성이 먹는 녹을 먹어 왔다고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보냈다.
- c. 대별왕은 해안동에, 소별왕은 오등동에 좌정하였다.

오등동 당본풀이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형제 관계, 그 근원이 하늘에 있는 신격이라는 것은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당본풀이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대립하지 않고 서로 다른 곳에 좌정하게 된다. 이 당본풀이는 자신들의 당의 근원이 하늘의 존재인 대별왕과 소별왕에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립관계는 차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5)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서울 : 민속원, 1991), 345~347쪽. 강제길 구연.

## 2. 순환 구조와 의미

설화나 고소설 작품들에서는 시련과 극복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순환 구조와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이 나타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도 이러한 순환 구조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나는 순환 양상을 살펴보고 순환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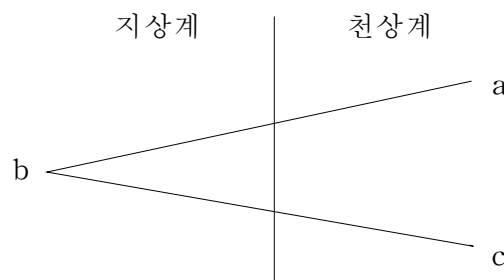
### 가.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천지왕과, 대별왕과 소별왕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은 인물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천지왕에서 나타나는 순환 양상과 대별왕과 소별왕에서 나타나는 순환 양상을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 1) 천지왕의 순환 양상

- a. 하늘에 천지왕이 살았다. → 천상계
- b.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결연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왔다. → 지상계
- c. 천지왕은 총명부인에게 태어날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 천상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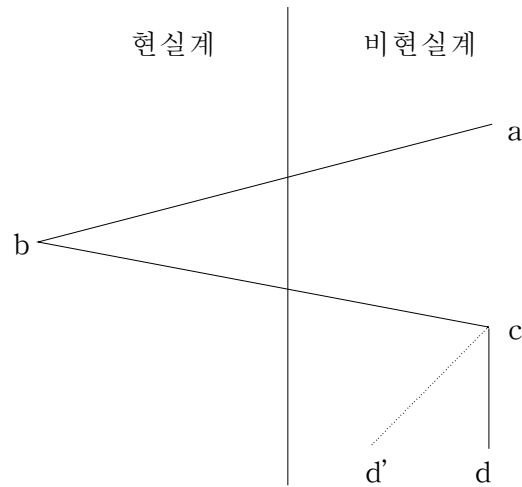
[그림-1] 천지왕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고소설이나 설화 속 인물들은 지상계, 천상계, 용궁계, 선계 등의 세계를 오고 가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는 각각의 세계들이 단절된 곳이 아니라는 전승 집단의 의식의 표현이다. 천지왕은 존재의 근원이 천상계에 있는 신이다. 혼란한 세상을 정리해 줄 귀한 자식을 얻기 위해 지상에 내려와 총명부인과 혼인을 한다. 그러므로 천지왕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 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것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출생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신이한 존재임을 증명해 준다.

## 2) 대별왕 소별왕의 순환 양상

- a.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가 천상의 존재인 천지왕이다. → 천상계
- b. 대별왕과 소별왕은 지상에서 태어난다. → 지상계
- c.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이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 → 천상계
- d. 소별왕은 이승 차지 경쟁에서 이겨 이승을 차지하게 된다. → 천상계
- d'. 소별왕의 속임수 때문에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 → 천상계

대별왕과 소별왕의 아버지 천지왕은 천상계의 신이다. 그러므로 대별왕과 소별왕의 근원은 천상계에 있지만 지상계에서 태어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지왕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신이 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천상계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경쟁을 통하여 각각 이승과 저승의 신으로 좌정하게 되면서 둘에게 같이 나타나던 순환 양상은 분화된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순환 양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대별왕과 소별왕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

대별왕과 소별왕은 반신반인(半神半人)적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이동하면서 인간적 속성을 폐기하고 내재되어 있던 신성을 깨하게 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경쟁을 통하여 각각의 공간에 좌정하게 된다. 소별왕은 신들의 공간인 천상계에서 이승을 다스리고, 대별왕은 비현실계에서 관념적 공간인 저승을 다스리게 된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이동하는 것은 각각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좌정하기 위해서이다.

### 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의 신으로 좌정하기까지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이 나타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은 천상계에서 이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나타난다. 서사 진행에 따라 대별왕과 소별왕의 순환 양상이 달라지므로 대별왕과 소별왕에서 나타나는 순환 양상을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 1) 대별왕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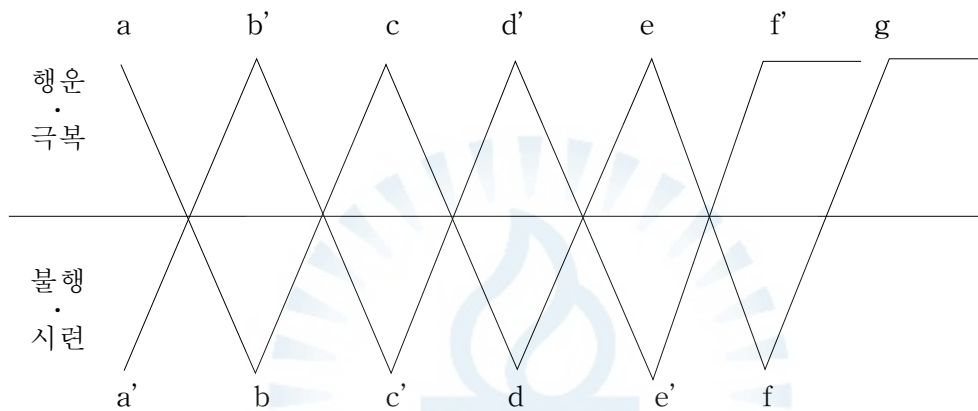
- a. 아버지로부터 이승을 다스리라는 신직을 받는다. → 행운
- b. 소별왕으로부터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이긴 사람이 이승을 다스리자는 제안을 받는다. → 시련
- c.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승리한다. → 극복
- d. 소별왕으로부터 다시 꽃 가꾸기 내기를 제안 받는다. → 시련
- e. 타고난 생명력 조절의 능력으로 만발한 꽃을 피운다. → 극복
- f. 대별왕이 잠을 자는 사이에 소별왕이 꽃을 바꿔치기 하여 내기에서 졌다. → 시련
- g. 마음을 고쳐먹고 저승을 이승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린다. → 극복

## 2) 소별왕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

- a'. 아버지로부터 저승을 다스리라는 신직을 받았으나 이승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에서 이에 불만을 품는다. → 불행
- b'. 대별왕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이긴 사람이 이승을 다스리자고 제안하니 대별왕이 이를 받아들인다. → 극복
- c'.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다. → 시련
- d'. 다시 꽃 가꾸기 내기를 제안하니 대별왕이 이를 받아들인다. → 극복
- e'. 대별왕의 꽃은 만발하지만 자신의 꽃은 시들어 간다. → 시련
- f'. 자신의 꽃과 대별왕의 꽃을 바꿔치기 하여 내기에 이기고 이승을 다스린다. → 극복

대별왕은 형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승을 다스리라는 신직을 받는 행운을 얻으나 소별왕의 도전에 의한 시련으로 부정된다. 이와 반대로 소별왕은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저승을 다스리라는 불행을 얻으나 내기를 제안하여 시련을 극복하고자 한다. 대별왕은 동생의 도전으로 시련을 당하지만 자신

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 소별왕은 형에게 도전을 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려 한다. 결국, 꽃 가꾸기 내기에서 소별왕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지만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는 시련을 겪게 된다. 대별왕은 이 시련도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저승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림으로써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대별왕도 시련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3] 대별왕과 소별왕의 시련과 극복의 순환 양상

신화 속의 주인공들은 당금애기나 바리공주처럼 시련을 자신의 힘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대별왕과 소별왕도 대개의 신화의 주인공들처럼 시련을 극복하여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별왕과 소별왕은 신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당금애기나 바리공주와는 달리 조력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하여 행복을 성취한다.

「천지왕본풀이」의 순환 구조는 천상계와 지상계, 시련과 극복이 반복되어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천상계→지상계 →천상계’로 순환하며 시련과 극복의 순환은 대별왕과 소별

왕이 반대되어 나타난다. 즉, 대별왕이 시련을 극복하면 소별왕은 시련을 받는 것이 된다. 대별왕의 시련은 소별왕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소별왕의 시련은 대별왕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신으로 좌정하기까지 이런 ‘시련→극복’의 구조를 거친다. 천지왕,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상계와 지상계 순환, 시련과 극복의 순환을 통해 보다 완전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미분적 상상과 순환은 존재의 근원을 카오스로 보고, 모든 존재는 카오스적인 미분성을 바탕으로 순환하면서 영구히 지속된다고 믿는 한국인의 존재 근원에 대한 원질적(原質的) 사고, 즉 원본사고(原本思考)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96)</sup> 「천지왕본풀이」의 순환 구조가 성립할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미분성을 바탕으로 한 원본사고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천지개벽—천지왕 결연—천지왕 업적—부친 탐색—공적—경쟁—신직 획득’의 순차 구조를 가진다. 혼합되었던 천지가 개벽되고 만물이 생겨나는 천지개벽담, 혼란한 세상을 정리해 줄 이세(二世)를 얻기 위한 천지왕 결연담, 부정의 존재인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천지왕 업적담, 부친 탐색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내면에 잠재된 신성을 확인한다. 두 개씩 떠 있는 하늘의 해와 달을 커다란 활로 조정하는 공적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형제가 수수께끼 내기와 꽃 피우기 내기를 하는 경쟁담, 결국 속임수로 소별왕은 이승의 신이 되고 대별왕은 저승의 신이 되는 신직 획득담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순환 구조에서는 인물의 목적에 따라 천지왕,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나누어지나, 모두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을 보이며 대별왕과 소별왕의 신성성을 증명해 준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의 신으로 좌정하게 되기까지는 ‘시련’과 ‘극복’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미분적 상상과 순환 사고에 의

96)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서울 : 보고사, 1995), 334쪽.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인의 존재 근원에 대한 원본 사고에 의한 것이다.





## IV. 전승집단의 의식

모든 구비문학은 창작과 전승에 대다수의 민중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이 작품 곳곳에 반영된다. 이 장에서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 및 그것이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의식 세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네 가지의 관점에서 이 서사무가에 반영된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펴보겠다.

### 1.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사고

모든 신화는 그 민족의 독특한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도 이 신화를 향유한 집단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상징하는 공간은 하늘과 이승과 저승이다. 하늘은 천지왕이 지배하는 곳으로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에 있다. 하늘이 상징되는 것으로 보아 인간과 신의 관계 그 질서에 대해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으로 보아 신은 인간의 복과 수명, 운명을 관장하며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제대로 모시지 않을 때에는 벌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승은 가시적인 세계이며 인간이 사는 세계로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한 곳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곳으로 나타난다. 저승은 비가시적인 세계이며 귀신이 사는 곳으로 대별왕이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는 곳으로 나타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기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지만 그 공간에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비현실계에서 이승과 저승을 다스린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이 구분되는 양상은 다른 설화와 차이가 없으나 저승이 위치하는 공간은 다른 설화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저승은 여러 설화에서 사람의 죽은 영혼이 가는 곳으로 나타나 있다. 저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세라 할 수 있다. 내세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신앙의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시베리아의 벨티르·사가이·카크킨·둘가스·골든족이나 독일인, 멕시코의 아즈테구즈족, 페루의 잉카족은 묘를 사자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하의 명계로 생각하였다. 바빌로니아·게르만·아일랜드인은 해가 지는 서쪽이나 서남쪽에 사자(死者)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사령(死靈)이 잠시 지상에 떠돌다가 해가 지는 쪽이나, 바다 건너 서쪽 선조의 고향인 영도(靈島)로 간다고 믿어 사자의 나라가 지상의 어딘가에 내세가 있다고 믿었다. 페루 해안 지방의 치무족이나 부루다뉴 지방의 일족인 부리돈인도 사자의 나라를 지상의 어딘가로 생각하였다. 인도양의 안다만도의 원주민은 사람이 죽으면, 사령은 지하에 잠기고 정령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중국인은 사람의 정기를 혼(魂)이라 하고, 형체를 백(魄)이라 하여 혼백분리의 이원적 사고를 가졌는데,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또 중국인은 산 속 깊은 곳에 신선이 된 사람들이 사는 선계(仙界)가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민족은 사자의 영혼이 가는 곳, 즉 내세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신앙에 따라 지하의 명계(冥界), 천상의 타계(他界), 바다 저 건너편, 상상의 선계로 상정되었다.<sup>97)</sup>

한국인 상정한 내세는 저승, 산중의 선계, 천상의 세계, 용궁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인이 초기에 상정한 내세는 저승으로 지하에 있다고 믿어졌으며, 선악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나 종교적 관념 없이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었다가 도교·불교의 내세관과 용궁사상의 혼효로 산중의 선계·천상계·용궁등을 상정하게 되었다.<sup>98)</sup>

저승은 비가시적인 세계이지만 우리의 관념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승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만, 저승은 우리의 인식 상에서 생(生)과 멸(滅)도

97) 최운식, 옛 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서울 : 한울, 1992), 203~204쪽.

98) 최운식, 앞의 책, 262쪽.

없는 무한한 공간이며, 이승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간이 된다. 저승 공간이 이런 곳으로 인식된 것은 영혼불멸의 사고관, 유한한 삶을 무한하게 누리고 싶은 전승집단의 의식 때문이라 하겠다. 이승과 저승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승의 공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승이 이승의 수직 상방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수평의 아득한 먼 곳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저승이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인 천상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별왕이 옥황(玉皇)드레 도올르져 정월이라 쳇뎃날 메(苗種)를 심어 양 곡줄을 옥황테레 번히고, 흰 곡줄은 지붕테레 번힙테다. 천하를 곱언 보난, <이중춘본>

나는 저승법 지너살져 옥황상저 올라가노라. <고대중본>

귀신광 생인이 서로 말 ㄱ는 건 화정여광 남정중응르불러다가 백근 저울에 저우려 반, 백근 찬 건 인간테레 지부찌고 백근 못찬 건 공즈 둘 박안 옥황테레 지울리난 <이무생본>

<이중춘본>, <고대중본>에서 나타나듯이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저승은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무생본>처럼 귀신과 사람이 같이 존재하여 어지러운 이승을 대별왕이 정리할 때 귀신을 하늘로 보내는 것 또한 저승이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에 있음을 나타낸다.

저승 공간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인식은 제주도 서사무가 「차사본풀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차사본풀이」에서 강님은 염라대왕을 모셔오라는 사또의 분부로 저승에 찾아간다. 조왕신, 문전신의 도움을 받으며 수평적으로 끝없이 걸어다가다 도달한 저승은 물에 빠져 곧바로 연결되는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에 있는 공간이다. 저승이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

는 구절은 염라대왕이 이승에 행차할 때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염라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99)</sup>

이승은 혼란한 곳으로 늘 결핍이 있는 곳이지만 저승은 공명정대한 곳으로 이승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승과 저승은 성격적으로 대립되나 서로 단절된 곳이 아니라 교류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사무가의 주인공들은 이승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저승에 와서 행복을 성취하는 이계(異界) 여행을 한다.<sup>100)</sup>

저승 공간은 민담이나 서사무가에서 지하, 지상계의 수직적 공간, 수평적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지상계의 수직적 상방에 위치한다. 건국신화에서도 저승이 천상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나 신라의 시조 혁거세는 죽어 하늘로 올라갔다.<sup>101)</sup> 이는 저승이 수직적 상방에 위치한다기보다는 고귀한 인물들은 죽는 곳도 다르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수직적 사회 질서에 걸맞은 수직적 타계질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속에서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저승이 법이 공명정대하다는 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이승은 혼란한 곳임에 비해 저승은 공명정대한 이상세계로 상정되며 이승의 결핍을 해소해 주는 공간이다.

99) · 오색무지개가 갑자기 동헌 마당에 걸리더니 좁은 목에 벼락 치듯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염라대왕의 행차가 동헌 마당에 들어서는 것이다.(염라대왕이 행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생기는 오색 무지개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표현된다.)

· 강님은 염라대왕과 함께 건드러지게 내려갔다.

· “살아 있는 차사도 차사입니다. 우리 인간 강님 차사도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과 같이 내려오는 듯 합니다.

이 예시문은 권태효,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서울 : 지식산업사, 2005), 242쪽의 예시문을 인용하였다.

100) 「제석본풀이」, 「차사본풀이」, 「이공본풀이」, 「허웅아기본풀이」, 「세경본풀이」 등 ‘이계여행담’이 나타난 무가들이 그 예이다.

101) 주몽은 40세에 하늘로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지 61년이 되던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고 한다.

## 2. 현실 비판과 구원의 기대

「천지왕본풀이」에는 현실 세계의 모순과 혼란에 대한 원인론적 설명이 나타난다.

소백왕은 이심 좇일 하였수다. 경호연 저성광 이심을 질루지쑥 츠지호연 다시리는다, 혼 하늘엔 해도 둘, 둘도 둘, 욕심 썬 놈이 하고, 도둑 적간이 하고, 인간이 불목이 하고, 상괘깃이 하영 싶고, -(중략)- 대백왕광 소백왕은 아방 맹을 어견 천지왕 곶은냥 하지 아니호여부난, 인간 세상이 하근 도둑들이 하고 불목즈가 하고 나쁜 일이 하영 납네다. <이무생본>

『설운 아시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츠지혜여 들어가라마는 인간의 살인(殺人) 역적(逆賊)만호리라. 고문도둑 만호리라. 남 즈즈식(男子子息) 열다섯 십오세가 뉘며는 이녁(自己) 가속(家屬) 놓아두고 놈의 가속 울러르기 만호리라. 예자식(女子息)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민 이녁넙편(男便) 노아두고 놈의넙편 울러르기 만호리라.』 <정주생본>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승은 도둑, 간통, 살인, 근친상간, 역적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없으며, 악한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각본마다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혼란이다. 인세를 차지한 소별왕이 당위성을 지니지 못한 신격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전승집단의 현세적 질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구조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에 대한 불신의 의식이라 하겠다.<sup>102)</sup>

저승은 이승의 혼란과 대비하여 청명한 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저승은 전승집단에게 이상사회로 나타난다.

102)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87쪽.

대별왕은 저싱국을 가난 불쌍한 백성은 불쌍대로 제서 주고 원통한 백성은 원통대로 제설내어주고 가련한 백성은 가련대로 제서 주고 정막한 백성은 정막대로 제설 주어 법지법(法之法)이 밝아지며 진옛날에 참쌀골은 법이다. <강일생본>

전승은 현실세계와 공존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변별된 관념적 세계로서 현실과 배치되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심화시켜 나간다. 이상사회가 저승처럼 도달할 수 없는 피안(彼岸)의 세계로 그려지면 개인적 차원의 구원으로 이상사회가 구현된다. 구원은 곳을 통해서 실현된다. 곳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나마 이상향으로 들어설 수 있는 매개물이 되어 주며, 현실의 자아와 카오스의 자아가 합치되어 완전한 자아를 각성시켜 주는 도구가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전승집단은 무속을 향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질서와 사회를 개혁하고 싶다는 민중적 소원과, 이상세계와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sup>103)</sup>

전승집단은 살인, 역적, 간음 등 여러 범죄가 횡행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결국, 혼란의 원인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신에 의한 부정과 어려움은 신의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전승집단은 신의 법인 곳을 통해 현실 세계를 카오스 세계로 환원시켜 부정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곳은 전승집단에게 관념적으로나마 혼란과 부정이 없는 최초의 상황으로 환원시켜 주며 정화된 최초의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 주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으로 나타난다.

### 3. 타인에 대한 배려 · 욕심에 대한 경계

「천지왕본풀이」에는 악에 대한 징계의식이 나타난다. 이는 수명장자와 소별왕의 행동에 따른 알맞은 대가를 치른 것에서 전승집단의 도덕률을 엿볼 수

103) 최길성, “천지개벽과 종말론,” 비교민속학 10집(경기 : 비교민속학회, 1993), 211쪽.

있다. 수명장자는 하얀 쌀을 꾸러 온 사람에게 하얀 모래를 반 섞어서 끼우고, 좁쌀을 꾸러 온 사람에게는 검은 모래를 반 섞어서 끼 주면서도 이자는 배로 받는다. 수명장자는 자신이 축척한 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더 큰 부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본에 따라서는 조상을 잘 섬기지 않는 불효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딸들은 부자이면서 일꾼을 부릴 때도 맛있는 음식은 자신들이 먹고 일꾼들에게는 썩어가는 음식<sup>104)</sup>을 주는 등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인정도 없다. 아들들은 마소에 물을 먹이지 않고 굶겨 죽이는 등 생명을 존중할 줄도 모른다.

천지왕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신이다. 신에게 인간인 수명장자가 징치를 당했다는 것은 잘못을 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천벌의식의 표현이다.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불합리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꾸며낸 이야기를 통하여 대리만족하고 싶어 한다.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향유함으로써 현실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인색한 부자인 수명장자가 징치당하는 것에서 전승집단은 ‘인정이 넘치는 부자’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소별왕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려 형과 내기를 하고 속임수를 쓰면서도 꼭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그 때문에 이승은 역적, 살인, 방화 등 온갖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된다. 소별왕의 과욕과 무책임한 행동에서 자신의 분수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전승집단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 4. 인간중심적 사고

모든 무속에서는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나는데, 「천지왕본풀이」에서도 인

---

104) 채록본에는 좋은 간장은 자기들이 먹고, 일꾼들에게 썩은 간장을 주었다고 한다. 장은 음식의 기본이므로 좋은 간장은 좋은 음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생각된다.

간중심적 사고가 드러난다.

소별왕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이승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대별왕도 소별왕에게 이승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서로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서로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는 것은 신들이 인간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곧 전승집단의 의식의 표현이다. 여기에서 전승집단의 인간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천지왕이 인간인 총명부인과 결연해서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는 것 또한 인간중심적 사고의 반영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의 특성을 공유한 신이다. 그런 반신반인(半神半人)적 존재가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 그 법을 마련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있다. 그것은 질서 체계로 구현되는 창조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인간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자긍심의 표현이다. 이런 자긍심은 자기애(自己愛)와 인간애(人間愛)의 바탕이 되어 인간 존중 사상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는 「천지왕본풀이」에 내재된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천지왕본풀이」에는 이승과 저승으로 대표되는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가 나타나며 그 공간을 다스리는 신의 세계까지도 상정하는 관념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승집단은 이 세상을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간에 대한 질서가 잡히는 모습에 대해 깊은 사고를 하였다. 이 서사무가에서 저승은 지하계가 아닌 지상의 수직적 상방인 천상계에 위치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서사무가에서 이승은 혼란스러운 곳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위성을 지니지 못한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기 때문에 전승집단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에 비해 대별왕이 다스리는 저승은 맑고 청명한 ‘춤실같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이상향으로 나타나는데 곳을 통하여 전승집단은 관념적으로나마 저승 즉, 성(聖)의 세계로 회귀할 수 있게 된다. 욕심 많은 수명



장자와 소별왕의 모습을 통해 전승집단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욕심에 대한 경계의식을 가졌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 인간적 모습을 띤 신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법을 마련한다는 것에서 이 신화에 내재된 인간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 V. 교육적 활용

이 장에서는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의 교육적 활용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서사무가 교육의 중요성을 설화 교육적 관점에서 찾고, 「천지왕본풀이」의 문학제재로서의 적합성과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읽기 자료로 교재화한 뒤에 지도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교육적 성격과 의의

설화는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향유해 온 문학이다. 그 속에는 조상들의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형상화 되어 있어 문학으로서는 물론, 언어·신앙·풍습·정신사 면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귀중한 자료이다.<sup>105)</sup>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구비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문학교육에서 신화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온 무가를 수용하는 면은 여전히 부족하다.<sup>106)</sup> 학교 현장에서 무가와 관련된 교육 활동이나 문학 제재로서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은 무가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으며 무가에 대한 지식도 전무하다. 무가는 무속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속을 보는 부정적 시각에 의해 기피되어 왔다. 하지만 무속은 우리 민족의 사상적 기저를 이루고 있는 종교 현상이며, 우리의 삶과 정신 속에 깊이 용해되어 있다. 또한, 무당들이 부른 무가에서는 다양한

105) 최운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 문학(서울 : 민속원, 2002), 11쪽.

106)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단군신화, 동명왕 신화, 연오랑과 세오녀, 설문대할망, 다자구할머니, 중학교에서는 그리스·로마 신화, 바리 공주 신화 등 총 7편의 신화가 실려 있지만, 그 중에서 서사무가는 바리 공주 뿐이다.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우리 민족의 삶을 규범화한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상상력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다양한 세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사무가 교육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 준 문학 유산인 신화의 바른 이해와 전달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올바른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갖게 하며,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상상력을 계발시키며, 바른 인생관을 형성시키고, 올바른 생활의 가치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sup>107)</sup> 또, 서사무가 교육은 그동안 건국신화 중심의 획일화된 신화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학습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현재 전래동화로 개작되어 있고, 성인들을 위한 교양서적에도 실려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구비문학 연구가들로부터 문학성이 있는 서사무가로 주목으로 받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양신화들에 비해 인식 기반이 약한 「천지왕본풀이」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문학 제재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제재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학 작품 선정의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비문학 교육의 본질과 성격에 비추어 「천지왕본풀이」가 갖는 문학 제재로서의 적합성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목적상 알맞은 제재이며 좋은 설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교육에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의 문화, 향토, 민족, 언어, 역사 등에 대하여 단순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애착과 관심을 갖는 일이라 하겠다. 애착과 관심을 자짐으로써만 자기 문화에 대한 내면으로부터의 이해가 가능하고, 이해의 토대 위에서만 주체성 있

---

107) 강정임, “「세경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5쪽.

는 금지와 자존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08)</sup>

전래동화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 형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있다면<sup>109)</sup> 신화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초등학교 학습자들은 원형성을 가진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것이 좋다. 문학교육에서 신화는 보통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 등 건국신화만 가르치는데 이러한 신화는 태초의 신화라 보기에 어려우므로 우주 만물의 창조, 선악의 대결과 같은 신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sup>110)</sup> 「천지왕본풀이」는 이 세상의 태초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며, 우리 민족의 근원적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수명장자와 소별왕의 부정한 태도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인간의 본성의 근원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아동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제재이다. 아동기는 초등학교 재학 기간인 6~12세의 6년 동안을 가리킨다. 사카모토(阪本一郎)가 분류한 독서 흥미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아동 전기(6세~8세)는 우화기, 아동 중기(9세~10세)는 동화기에, 아동 후기(11세~12세)는 동화와 아동 소설기에 해당된다.<sup>111)</sup> 이 시기 어린이가 감상하기에 알맞은 좋은 전래 동화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멋과 지혜, 꿈과 소망,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이야기 한 것, 효도나 우애, 신의, 협동 등을 이야기한 것이다.<sup>112)</sup>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조상들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고난 극복의 의지를 키우고,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를 초등학교 문학교재로 활용할 경우 교재화의 방법과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08) 김인회, 한국무속사상 연구(서울 : 집문당, 1993), 334쪽.

109)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 집문당, 1998), 52~53쪽.

110) 편혜문, 어린이 민속과 놀이 문화(서울 : 민속원, 2005), 240쪽.

111)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91쪽.

112)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100쪽.

「천지왕본풀이」는 세상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 아동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면서 본토에서 채록되는 창세신화와나 다른 나라의 신화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크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의 무속제의에서 불리고, 무가 수용자들이 어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투리와 어려운 표현은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작이 필요하다. 또한 서사무가만이 갖는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부분만을 활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학년 수준에 맞게 구연 내지 읽기 자료로 개작하는 것이 좋겠다.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를 교재화할 때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되도록이면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둘째, 서사구조의 논리적 전개에 주안점을 둔다.
- 셋째, 현존본이 전승 과정에서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보아 세속적인 요소를 소거하고 신성성을 살린다.
- 넷째, 구비전승 과정에서 가미된 타 종교의 색채는 가급적 배제하고 무속신화 본래의 모습을 살린다.
- 다섯째, 이야기로 엮어나가되 가능한 한 연회를 전제로 한 대본의 언어적 표현을 살린다.
- 여섯째, 문학적 형상화에 노력한다.
- 일곱째, 어려운 용어나 생경한 말들은 쉽게 고쳐 쓰되, 적당한 대체 용어가 없을 때에는 ( )나 각주로 알맞은 설명을 부기해준다.
- 여덟째, 부분 수록보다는 전체 수록을 원칙으로 한다.<sup>113)</sup>

요컨대, 무속신화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문학적으로 형상화는 방향으로 교재화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방법에 유의하며 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113) 이현숙, “<바리공주>무가 연구-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03쪽.

「천지왕본풀이」는 민담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오랜 태초의 시간을 상정하여 세상이 생겨나게 된 원인, 방법 등이 나타나 어린이들에게 세상의 태초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할 때의 그 위엄과 권능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 해 준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와 꽃 가꾸기 내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는 모습에서 어린이들은 지혜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욕심이 많은 수명장자와 속임수로 이긴 소별왕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스스로 정의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혼란에 담긴 원초적 세상의 모습 등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 신화가 구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도된다면 학습자의 말하기·듣기 능력이 신장되며, 학습자의 신화적 상상력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구연자와 청자의 인간관계도 돈독해져 비잠재적 교육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천지왕본풀이」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세상의 근원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에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신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왕본풀이」는 세상의 근원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 준다. 더 나아가 이 신화는 세상과 자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태초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서 대별왕, 소별왕이 화살을 쏘아 지금처럼 해와 달이 하나씩 떠오르며, 동식물이 인간들처럼 말을 주고받는다 등의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

극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제시 방법이나 수업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재창조에 참여할 수 있어 신화적 상상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계 의식을 심어 준다. 지나친 욕심을 부려 징치되는 수명장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이성을 다스리겠다는 욕심만으로 비열한 행동을 하는 소별왕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소박한 도덕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줄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스리고 싶어 했던 이승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삶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요즘에 어린이들은 「천지왕본풀이」에 담겨진 인간중심적인 관념을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2. 교재화 방안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핀 교재화의 방법 및 유의점에 준하여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를 초등학교용 읽기 자료로 개작해 보겠다. 또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 가. 개작 자료 검토

「천지왕본풀이」는 제주 지역에만 전승되나 변이 양상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신화적 원형이 잘 나타나게 개작하여야 한다. 읽기 자료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논의해 보겠다.

이미 개작된 자료로는 열일곱 편이 있다.<sup>114)</sup> 이 중 동화책으로 출판되어 초

114) 김종상, 새로 찾은 우리 신화(서울 : 예림당, 1995).

김종상, 우리의 신화 옛날 옛적에(서울 : 지경사, 1990).

문명식, 한계레 옛 이야기(서울 : 한겨레신문사, 1999).

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절판되어 개작본을 구할 수 없었던 신경림 개작본을 제외하고 김종상1, 김종상2, 문명식, 김화경, 이경덕, 김원석, 현길언, 서정오, 오경문, 김장성이 개작한 것으로 모두 10편이다. 어른들이 읽기에 적합한 개작본은 신동훈, 최원오, 이지영, 한상수, 장주근, 고대경 개작본으로 모두 6편이다.

김종상 개작본 1은 <정주병본>을 모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나서 수명장자의 아들이 솔개가 된 부분에서 ‘솔개의 깃털이 희끗희끗한 것은 그 때 묻은 재 때문입니다.’라는 모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고 나서 형제가 힘을 합쳐 이승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으로 서술하여 신화적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신화의 정체성을 살리기보다는 스토리의 전개에만 신경 쓴 개작이라 할 수 있다.

김종상 개작본 2는 개작본 1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개작본 1의 내용을 축약하였고 수명장자 징치담이 빠져 있다. 태초의 혼란한 모습은 썼으나, 세상이 생겨나는 모습은 쓰지 않아 어린이들이 세상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 김화경, 애들아, 한국 신화 찾아가자!(서울 : 오후세시북스, 2003).  
 이경덕, 대별왕 소별왕(서울 : 함께 읽는 책, 2003).  
 김원석, 태양을 쏘아버린 대별왕(서울 : 대교출판, 2004).  
 현길언, 제주도 이야기(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4).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서울 : 현암사, 2003).  
 오경문,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긴 이야기(서울 : 들창, 1999).  
 김장성,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서울 : 사계절출판사, 1998).  
 신경림, 한국전래동화 12(서울 : 웅진출판, 1993).  
 신동훈, 살아 있는 우리 신화(서울 : 한계레신문사, 2004).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 신화(서울 : 여름언덕, 2004).  
 이지영, 한국의 신화이야기(서울: 사군자, 2003).  
 한상수, 한국의 신화(서울 : 문음사, 1987).  
 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서울 : 집문당), 1998.  
 고대경, 신들의 고향(서울 : 증명, 1997).



문명식 개작본은 어느 특정본을 모본으로 삼지 않고, 작가가 이야기의 전개에 알맞게 여러 본들의 내용을 차용하여 개작하였기 때문에 「천지왕본풀이」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천지가 개벽이 되는 모습을 신들이 하늘나라가 너무 심심해서 세상을 바꾸는 공사로 형상화였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은 단순한 신들의 장난에 인한 피조물로 생각하게 할 위험이 있다. 옥황상제의 명령 하에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 내는 대장간 신의 모습은 그리스신화의 헤파이토스의 모습과 흡사하다. 모본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작가가 다른 나라의 신화를 차용하여 서술하였다. 수평적이면서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는 우리나라 신들이 질서에 대한 체계가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 우리나라 신화의 바른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인간의 기원은 음양의 상통에 의한 출현이다. 하지만 이 개작본은 이 부분을 본토의 김쌍돌 구연의 창세가의 화소를 차용하여 하늘나라의 농장에서 기르는 금별레와 은별레가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 등 「천지왕본풀이」의 고유한 특징 및 의미를 바르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

김화경 개작본은 <정주병본>을 모본으로 삼아 그 의미를 잘 살려 개작하였으나 낱말이 어려워 초등학교 어린이가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경덕 개작본은 특이하게 서사적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박봉춘본>의 「초감제」를 모본으로 삼아 개작하였다. 천지혼합의 모습은 잘 그려냈으나 이슬의 합수로 인하여 세상 만물이 생겨난 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천지왕본풀이」는 세상의 분화와 함께 이승과 저승을 다스린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과 신직획득이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작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어떻게 해서 이승을 다스렸는가에 대한 설명 없이 ‘해를 쏜 대별왕은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의 왕이 되었어요. 달을 쏜 대별왕은 살아 있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라는 설명으로 마무리 되어 「천지왕본풀이」의 중요한 의미와 흥미진진한 즐거움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김원석 개작본은 혼합된 천지가 개벽되는 모습을 모본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도 신화에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썼다. <정주병본>을 모본으로 삼아 글을 쓰고, 서사성이 부족한 부분을 작가의 상상력을 잘 발휘하여 글을 썼다. 하지만 천지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는 꿈을 꾸는 모습은 작가적 상상력이 지나친 감이 있어서 아쉽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그 때 대별왕이 조금만 더 질서를 잡아 주었다면, 이 세상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넣어 독자들이 이 세상의 혼란이 대별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신화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마무리한 것이 문제이다.

서정오 개작본은 <정주병본>을 모본으로 삼아 글을 전개하였으나, 지상국 부인을 만나는 부분은 <박봉춘본>을 일부분 차용하였고,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부분은 <이무생본>의 내용을 덧붙였다. 구수한 입말로 개작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인과관계가 부족한 부분에는 작가의 상상력을 적절히 발휘하여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다. 하지만 끝부분,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는 대별왕이 혼자 혼란을 정리하는 모본과는 다르게 대별왕의 도움을 받으며 소별왕도 세상의 혼란을 정리하는데 일부분이나마 참여를 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소별왕이 그 뒤로 이승의 법을 맑게 하여 세상을 반듯하게 다스리려고 애를 썼지만 힘에 부쳐 잘 안 될 때도 있는 모양이야.’라는 말을 넣어 소별왕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작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욕심에 대한 경계라는 전승집단의 의식을 독자들이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길언 개작본은 <정주병본>을 모본으로 삼아 글을 썼으나 모본에도 있는 수명장자 징치담을 삭제해 버렸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천지왕의 위엄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같이 없애버린 것이 아쉽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수수께끼를 하였는지 서술하지 않아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낱말이 어려워 초등학교 어린이가 읽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오경문 개작본은 <이무생본>을 모본으로 삼은 듯 하나 이야기가 지나치게

축약이 되어서 누구의 본을 모본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개작본은 세상이 개벽되고 만물이 생겨나는 부분은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는 부분은 빠져 있으며,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 수명장자 징치담, 수수께끼 내기담은 한 두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라 신화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장성 개작본 <정주병본>을 모본으로 삼아 글을 전개하였다. 이 개작본은 자연스럽게 읽히고 작가의 상상력과 모본과의 조화가 잘 되어 있으나, 전승집단의 도덕률의 표현인 수명장자 징치담을 빼 버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지왕본풀이」는 개작본이 많이 출판되어 있으나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낱말이 어려워 초등학교용 읽기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둘째, 작가가 지나치게 개작하여 신화적 의미가 독자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셋째, 스토리 전개만을 염두에 둔 결과, 본토의 신화나 서양의 신화를 부분적으로 「천지왕본풀이」에 끼워 넣어 개작하여 이 신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천지왕본풀이」를 초등학교용 읽기 자료로 개작할 필요성이 있다.

## 나. 읽기 자료화

### 1) 읽기 자료의 개작 방법

#### 가) 제목

여기에서는 읽기 자료화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무가의 명칭인 「천지왕본풀이」보다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는 인물의 명칭과 그들이 획득한 신직을 넣어서 ‘저승을 다스리는 대별왕, 이승을 다스리는 소별왕’이라 하기로 한다.

## 나) 등장인물의 명칭

- (1) 주인공 : 주인공 이름은 ‘대별왕, 소별왕’, ‘대백왕, 소백왕’으로 나타난다. ‘대백왕, 소백왕’은 ‘대별왕, 소별왕’의 제주어식 발음으로 채록자가 구연자의 말을 그대로 채록한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은 표준어 발음을 따라 ‘대별왕, 소별왕’이라 하기로 한다.
- (2) 주인공의 부모 : 아버지의 이름은 ‘천지왕(天地王)’, ‘천주왕(天主王)’으로 나타나나 본풀이 제목 그대로 ‘천지왕’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어머니의 이름은 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백주 늙은 할망의 딸’, ‘갑오왕’, ‘총명부인’, ‘총맹(총맹)이’, ‘서수암이’으로 나타난다. ‘총맹(총맹)’은 ‘총명’의 제주어식 발음이므로 ‘총명’을 택하도록 하겠다. 또한 총명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중후한 느낌이 드는 ‘총명부인’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 (3) 악인 : 본에 따라 ‘수명장자’, ‘수명장제’, ‘쉬맹이’, ‘만연장자’로 불리어진다. ‘수명장제’는 ‘수명장자’의 제주어식 발음이며, 수명장자로 나오는 본이 다수이므로 ‘수명장자’로 부르도록 하겠다.

## 다) 내용의 침삭

내용 단락은 기본형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 세상의 혼란한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소별왕의 부탁으로 대별왕이 정리해주는 J단락은 삽입하도록 하겠다. 이 단락은 세상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어 흥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정리해주는 대별왕의 지혜와 인자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므로 2편의 <이승 혼란 해결담>을 참고로 내용을 삽입하겠다.

## 2) 읽기 자료

## 저승을 다스리는 대별왕, 이승을 다스리는 소별왕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옛날, 하늘과 땅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 별도 없어 온 세상은 깜깜했어요. 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조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북쪽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느다란 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동쪽, 서쪽, 남쪽에서도 금이 생겼어요. 맞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진 하늘과 땅에서 이슬이 솟아나 하나로 합쳐졌어요. 하나로 합쳐진 이슬은 하늘과 땅 사이를 돌면서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하나로 합쳐진 이슬이 멈추자, 산과 물이 생기고 사람, 풀, 나무, 짐승이 만들어졌어요. 하늘에는 크고 작은 별들이 총총 떠올랐어요. 이 세상은 제법 모습을 갖추었지만 해와 달이 없어 여전히 깜깜했어요.

이때,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여 우렁차게 울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더니 해도 두 개, 달도 두개가 떠올랐어요. 온 세상은 환해졌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낮에는 해가 두 개나 있어 백성들이 강한 햇볕에 타 죽고, 밤에는 달이 두 개나 있어 차가운 기운에 얼어 죽어갔어요. 또 세상은 무척 어지러웠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 온갖 짐승이 앞 다투어 말을 하는 바람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사람과 귀신이 이승에 함께 살아서 구별이 되지 않아 불편했지요.

‘어허, 큰일이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할까?’

천지왕은 걱정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천지왕은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삼키는 꿈을 꾸었어요.

‘방금 내가 꾸 꿈은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해 줄 귀한 자식을 얻을 꿈이 분명해.’

천지왕은 땅에서 제일 현명하고 인자한 총명부인과 혼인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어요.

총명부인이 사는 땅은 낮에는 곡식이 타 죽고, 밤에는 곡식이 얼어서 농사가 잘 안 되었어요. 총명부인은 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요. 천지왕이 내려오자 총명부인은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천지왕께 밥 한 끼 지어드릴 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부자인 수명장자 집으로 쌀을 꾸러 갔어요. 마음씨 고약한 수명장자는 쌀에 모래를 섞어서 꾸어주었어요. 총명부인은 쌀을 여러 번 씻어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천지왕은 총명부인의 정성에 흐뭇하여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첫 손가락부터 모래가 씹히는 것이었어요. 천지왕은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총명부인, 어떻게 해서 첫 손가락부터 모래가 씹힙니까?”

“죄송합니다. 수명장자 집에 쌀을 꾸러갔더니 모래를 섞어서 주었습니다. 여러 번 씻었는데도 모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명부인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수명장자라……. 아주 쾌썸한 사람이군요. 수명장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수명장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꾸면 하얀 모래를 섞어서 꾸 주고, 좁쌀을 꾸면 검은 모래를 섞어 줍니다. 꾸준 쌀의 이자를 몇 배나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려운데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군요. 또, 다른 잘못은 없습니까?”

천지왕은 총명부인에게 수명장자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어요. 수명장자 뿐만 아니라 아들들, 딸들도 인정이 없었어요. 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발일을 시키곤 했어요. 딸들은 맛있는 음식은 자기들이 먹고, 썩어가는 음식은 일꾼들에게 먹이며 일을 시켰어요. 수명장자 아들들은 말과 소에게 물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굶겨 죽게 했지요.

“수명장자, 쾌썸하구나. 용서할 수가 없다. 여봐라, 밖에 있는 벼락의 신, 천둥의 신, 불의 신은 들어라. 당장 가서 수명장자 집을 모두 불태워 버려라.”

수명장자는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딸들은 손가락을 엉덩이에 꽂아서 벌레가 되고, 아들들은 말과 소를 굶겨 죽게 한 죄로 솔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솔개는 꼬부라진 주둥이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비가 온 후 날개에 묻은 물을 활아먹으며 살게 되었지요.

천지왕은 총명부인과 혼인하여 며칠 밤을 지냈어요. 행복한 시간은 쏠살같이 지나갔어요. 천지왕은 하늘에 일이 많아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부인은 아들 형제를 낳을 것입니다. 큰 아들은 대별왕, 작은 아들은 소별왕으로 이름을 지으십시오.”

“천지왕님, 아이들을 위해서 증거를 두고 가십시오.”

천지왕은 증거로 박씨 한 알을 주었어요.

“아이들이 커서 나를 찾거든 이 박씨를 심으라고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부디 몸조심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십시오.”

총명부인은 쌍둥이 형제를 낳아 첫째는 대별왕, 둘째는 소별왕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대별왕 소별왕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이 열다섯 살이 되어 서당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어요. 서당의 아이들이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며 놀리는 것이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속이 상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하였어요.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이신 천지왕이시다.”

총명부인은 박씨를 주면서 땅에 심으라고 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씨를 심자, 박씨는 금새 싹이 트더니 무럭무럭 자라 덩굴이 하늘로 뻗어 올라갔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오르고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힘이 들어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꼭 참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서 오너라. 너희를 기다렸다. 하늘에 해도 두 개, 달도 두개씩 있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한다. 이 활과 화살로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기고 쏘도록 하여라. 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가 주는 활과 화살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았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떨어진 해와 달을 깊은 바다에 넣었어요. 그리고 해는 동쪽으로, 달은 서쪽으로 뜨게 했어요.

“참으로 대견하구나. 이 세상은 아주 혼란하다. 이제 이승과 저승의 질서만 바로 잡으면 된다. 대별왕은 이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려 이승과 저승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여라.”

소별왕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기 싫었어요.

“난 저승을 다스리기 싫어. 왜 형이 꼭 이승을 다스려야 하지? 어떻게 해서든 이승을 다스리고 말겠어.”

소별왕은 피를 내어 말했어요.

“형님,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다스리도록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형인 대별왕이 먼저 문제를 내기로 했어요.

“아우야, 어떤 나무는 겨울이 와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나무는 잎이 떨어질까?”

“형님, 속이 짝 찬 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속이 빈 나무는 잎이 떨어질

니다.”

“동생아,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대나무, 갈대는 속이 비어 있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별왕이 내기에 젖어요. 하지만 소별왕은 한 번 더 내기를 하자고 졸랐어요. 대별왕은 또 문제를 냈지요.

“동생아, 왜 언덕 위에 있는 풀은 잘 자라지 않고, 언덕 아래에 있는 풀은 무럭무럭 잘 자랄까?”

“형님, 봄비가 오면 언덕 위에 있던 흙이 비에 쓸려서 언덕 아래로 떨어집니다. 흙이 없어서 언덕 위의 풀은 잘 자라지 않고, 흙이 많은 언덕 아래의 풀은 잘 자랍니다.”

“동생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다면 왜 사람의 머리털은 위에 있어도 길고, 발등에 있는 털은 아래 있어도 짧지?”

소별왕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지혜가 형에게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소별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기를 합시다. 이번에는 꽃을 잘 가꾼 사람이 이승을 다스리도록 합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마음씨 착한 대별왕은 소별왕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은대야에 꽃을 심어 가꾸었어요. 대별왕이 심은 꽃은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소별왕이 심은 꽃은 제대로 피지도 않고 시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소별왕은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그래, 형님 모르게 내 꽃과 형님 꽃을 바꿔치기 해야겠어.’

소별왕은 피곤한 척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형님, 내기를 하느라 피곤한데 함께 한숨 잤다가 일어납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마침 피곤한데 잘 됐구나.”

욕심이 없는 대별왕은 곧 깊은 잠에 빠졌어요. 소별왕은 눈만 살짝 감았다가 금방 일어나 형의 꽃과 자기의 꽃을 바꾸어 놓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소별왕은 형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형님, 일어나십시오. 무슨 잠을 그리 오래 잡니까? 이 꽃 좀 보십시오. 형님의 꽃이 빨리 피더니 그 사이에 벌써 시들었나봅니다. 제 꽃은 늦게 피는 것 같았지만 이제야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지혜로운 대별왕은 소별왕이 꽃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소별왕과 다툼 마음이 없었지요.

“아우야, 그렇게 이승을 차지하고 싶다면 차지해라. 하지만 인간 세상은 어지러운 곳이다.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대별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저승으로 가버렸어요. 대별왕은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병이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나누어 주며 공정하게 저승을 다스렸어요.

한편, 소별왕은 기쁜 마음으로 이승에 갔어요. 하지만 이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지러운 곳이었어요. 그제야 소별왕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대별왕에게 찾아갔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승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이승을 다스리세요. 제가 저승을 다스리겠습니다.”

“아우야, 이미 정해진 것은 돌릴 수가 없단다.”

“형님 제발 어지러운 이승을 정리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별왕은 소별왕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대별왕은 이승으로 가서, 소나무 껍질을 가루로 뿜아서 사방에 골고루 뿌렸어요. 그러자 풀, 나무, 짐승의 혀가 굳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무게를 재어 보아, 백 근\*이 넘으면 사람으로 이승에 살게 했고, 백 근이 안 되면 귀신으로 저승에 살게 했어요.

“형님, 이 정도면 대충 정리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아우야, 나는 저승에 일이 많아서 더 머무를 수가 없구나. 부디 이승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소별왕은 어지러운 것이 정리되자, 쉽게 이승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별왕은 이승을 잘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소별왕의 능력으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에는 도둑과 사기꾼이 많고, 살인 등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

\* 근: 저울로 다는 무게의 단위. 1근은 보통 0.6 킬로그램(kg)

### 3. 읽기 자료의 교수-학습 활용

설화는 오래 전에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의 의식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에 그 속에는 민족의 역사·신앙·관습·세계관과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sup>115)</sup> 설화 교육은 단순히 내용에 담겨진 주제나 가치를 발견하거나 언어 기능 신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설화 교육은 아동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상의 문제를 심리적·정서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문학 교육은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체험의 확대·정서의 순화를 꾀하고, 상상력·창조력·심미성·도덕성을 기르며,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감정적 색조나 정서, 수용·거부의 태도 등을 중시한다. 그것들은 정의교육(情意教育)의 속성인데, 흔히 흥미, 태도, 감상, 가치, 정서적 반응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up>116)</sup>

정의적 특성이 내면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블룸(Bloom)이 설명한 5단계 교육 목표 분류에 의해 「천지왕본풀이」신화에서 다루어질 지도 항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sup>117)</sup>

#### 가. 감수

이 단계는 문학 작품을 대하는 첫 단계로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생은 문

---

115) 최운식, 한국 서사 전통과 설화문학(서울 : 민속원, 2002.), 11쪽.

116) 정원식, 정의의 교육(서울 : 배영사, 1973), 14~15쪽.

117) 정원식, 위의 책, 23~25쪽.

학 작품의 내용을 감수하기 위한 의식을 지녀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집중을 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할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천지왕본풀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하여 보기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에 대하여 듣거나 읽은 경험을 발표하기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거나 감상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낱말과 문장의 뜻 알아보기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읽고 대강의 줄거리를 발표하게 하고, 전체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이와 같이 감수단계는 작품에 대한 윤곽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를 작품으로 접근시키는 안내의 단계로서 작품 이해와 감상에 지장이 될 것 등을 제거해 주는 학습 단계라 하겠다.

## 나. 반응

이 단계는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감수의 단계를 넘어서서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참여 활동의 단계이다.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읽거나 읽은 후에 체험하는 반응은 인지적(認知的), 정서적(情緒的), 심미적(審美的)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세 측면의 반응은 각각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용하여 통합된 문학적 체험을 이루는 것이다.

### 1) 인지적 반응

인지적 반응에는 단순한 이해의 수준과 분석의 수준이 있다. 단순한 이해의 수준이란 일반적인 독서 이해의 수준으로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 속의 언어가 뜻하는 대상이나 사건을 머리에 그리게 된다. 작품 속의 낱말, 구절, 문법적 구조, 단순한 비유나 관용어 등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나 태도를 파악하기 등이다. 분석 수준의 인지적 반응은 문학이론의 개념과 원리를 작품의 해석

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물의 인간적 특성이 초자연적인지 사실적인지, 동적인지 정적인지를 밝혀내는 것, 줄거리가 연대기적으로 전개되는지 비연대기적으로 전개되는지를 알아보기, 관점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장면이 인물의 성격이나 줄거리 전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이야기에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의미의 발전이나 이야기의 기본구조 등을 알아보기 등이다.

- ▶ 「천지왕본풀이」의 시공간적인 특징 알아보기
- ▶ 「천지왕본풀이」를 읽고 옛날 사람들의 생각 알아보기

## 2) 정서적 반응

작품 속에 제시된 인물, 사건, 장면 등에 대한 느낌이 정서적 반응이다. 정서적 반응은 인지적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지적 반응을 잘못하면, 정서적 반응이 잘못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화자와 청자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의미 전달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어체로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읽었을 때의 느낌 말해 보기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구연해 본 경험과 느낌 발표하기
- ▶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한 장면 말하기
- ▶ 가장 긴장되는 장면 말하기
- ▶ 소별왕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
- ▶ 수명장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기

## 3) 심미적 반응

심미적 반응은 인지적, 정서적 반응 단계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적절하게 연관지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확인 단계라 할 수 있다.

- ▶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한 이유와 의미 알아보기
- ▶ 대별왕과 소별왕이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한 이유와 의미 알아보기
- ▶ 대별왕과 소별왕이 수수께끼 내기를 한 이유와 의미 알아보기

- ▶ 대별왕과 소별왕이 각각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의미 알아보기

효과적인 문학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또는 읽고 나서 위와 같은 세 가지 반응을 바르게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 다. 가치화

이 단계는 작품 이해의 활동과 참여하여 얻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문학교육의 본질적인 단계이다. 어떤 특성이 한 개인에게 가치화될 때 작용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치와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가치관을 학습자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학습자가 보다 나은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그것이 그의 확신의 바탕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이야기에 나오는 천지왕, 수명장자, 대별왕, 소별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 ▶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를 찾아보기
- ▶ 인물의 한 일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점수 매기기
- ▶ ‘내가 대별왕이 된다면?’, ‘이승을 다스리게 된다면?’, ‘내가 신직을 받는다면?’ 상상하여 써 보기
- ▶ 소별왕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 해보기

### 라. 조직화

이 단계는 학습자가 여러 가치를 내면화해 가면서 당면하는 하나 이상의 가치가 관련되는 사태에서 여러 가치를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결정하며, 하나의 계급적인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조

직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문학 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얻은 여러 가치를 체계화·개념화하여 실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되도록 보다 복합적이고 고도화 가치로 조직화하는 단계이다.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중심 생각 말하기
- ▶ 「천지왕본풀이」의 앞부분만 들려주고 뒷부분의 이야기 완성시키기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말하기
- ▶ 「천지왕본풀이」가 가진 전통적 사고와 가치관 알아보기

#### 마. 성격화

이 단계는 내면화 과정의 최종적인 단계이다. 문학교육에서의 이 단계는 문학 작품에서 얻은 조직화된 가치가 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인격화되는 단계이다.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살피고 본받을 점 실천하기
- ▶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신화 가운데서 「천지왕본풀이」 이야기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이야기 찾아보기
- ▶ 「천지왕본풀이」 이야기를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

「천지왕본풀이」 신화를 문학작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 항목들을 추출해 보았다. 설화는 위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내면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어 설화를 읽기 위한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작품 감상력을 발달시키고 문학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길러 이를 가치화·조직화·내면화 시키는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알아보았다.

## 4. 지도의 실제

국어과의 교육 내용은 그 성격이 다양하며, 그에 따른 목표도 어느 한두 유형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이 유형을 국어과의 모든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특히 문학 작품 지도 수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어과 수업에서 비교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교수-학습 유형으로 일곱 자기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sup>118)</sup> 이 연구에서는 이들 유형 중 비교적 설화를 이용한 국어과 수업에서 적용하기에 타당하다고 보이는 반응 중심 학습법을 중심으로 「천지왕본풀이」 신화 수업 과정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반응 중심 학습법은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들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초점을 둔다.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 처음에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점차 자신의 반응을 명료화하면서 심화시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때, 각자의 반응을 존중하되 동료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신의 반응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형의 수업 절차는 ‘반응의 형성→반응의 명료화→반응의 심화→반응의 일반화’ 순이다.

이 유형은 국어과에서 문학적인 텍스트를 다룰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글의 주제나 인물 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좀더 적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천지왕본풀이」는 다소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우리나라의 신화라는 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

118)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6-2), 2001. 338쪽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학 텍스트에 다루기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 논문에서 연구한 「천지왕본풀이」 신화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표-8]과 같이 구성하여 보았다.

[표-8] 반응 중심 학습 절차에 의한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주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 나타내기	영역	말하기·듣기·쓰기	수업 방법	반응 중심 학습
학습 목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나타낼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		형태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 처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 아무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생물의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신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li> <li>•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나타낼 수 있다.</li> <li>• 학습 활동 안내 및 주의점 안내하기</li> </ul>		■ 학습 안내도
	학습목표 파악하기 학습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알고 있는 신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볼까요? -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 등</li> <li>• 「천지왕본풀이」 읽기 자료를 들려준다. - 이야기의 짜임을 생각하며 이야기 듣기</li> </ul>		
전개	반응의 형성	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 한 덩어리로 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벌어지면서</li> <li>• 천지왕은 어떤 일을 했나요? - 총명부인과 결혼하고 수명장자에게 벌을 줌</li> <li>•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떻게 해서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나요? - 꽃 가꾸기 내기에서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형의 꽃과 자기의 꽃을 바꾸었기 때문</li> <li>• 수명장자는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벌을 받았나요? - 큰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서</li> <li>•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해 보자. - 맨 처음 세상이 어지러운 모습, 소별왕이 거짓말하는 모습, 대별왕이 세상을 정리하는 모습 등</li> <li>• 인상적인 장면을 행동으로만 표현하면 맞추기</li> </ul>		■ 「천지왕본풀이」 읽기 자료
	반응의 명료화		반응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인</li> </ul>	



전 개			<p>입을 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활을 쏘는 모습 : 대별왕과 소별왕이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을 맞추는 장면</li> <li>- (예) 줄을 타는 모습 :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의 덩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li> </ul>	<p>태도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한다.</p>
	개인적 반응의 표현	개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지왕본풀이」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화로 나타내기</li> <li>- 그림으로 나타내기</li> <li>- 편지글로 나타내기</li> <li>-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과 인터뷰 기사 쓰기</li> <li>- 노랫말로 나타내기</li> <li>- 역할극 대본으로 나타내기</li> </ul> </li> <li>• 친구들의 표현한 것을 살펴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야?, 수명장자는 왜 이렇게 나타났어?, 소별왕의 입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 했네. 대별왕과 소별왕의 특징이 나타나게 가사를 잘 붙였네. 대별왕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잘 했네.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li> <li>▣ 읽기 자료에 대한 느낌의 다른 수용하고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생각의 다른 서로 질문하도록 한다.</li> </ul>
	반응의 심화	간 단 한 토론	모둠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명장자가 꼭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천지왕이 너무 심했어.</li> <li>- 아니야, 수명장자는 욕심쟁이고 남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li> <li>- 소별왕은 속임수를 썼지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소별왕이 대별왕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li> <li>- 속임수와 지혜는 다른 거야. 지혜는 슬기와 똑같은 말이고 속임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나쁜 행동이라 할 수 있지.</li> </ul> </li> <li>• 수명장자가 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을지 상상하여 말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수명장자는 천지왕에게 큰 상을 받고 더 부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수명장자를 왕으로 모셨을 것이다.</li> </ul> </li> <li>•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을지 상상하여 말해보자.</li> </ul>
	이야기 재구성	전 체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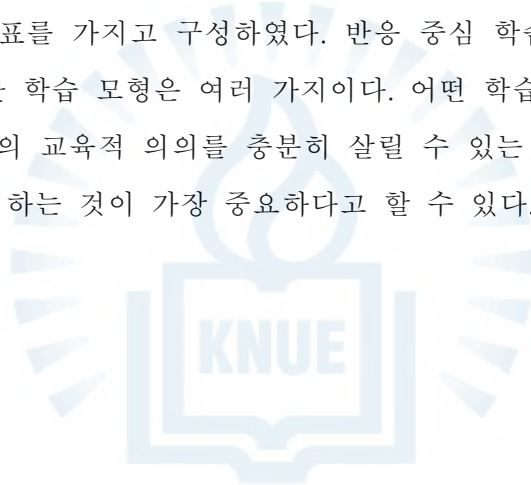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이승은 살기 좋은 곳이 되지만 소별왕이 저승을 관리 잘못해서 저승에서 도망친 영혼들이 이승에 나타날 것 같다.</li> <li>• 본토의 창세신화를 들려준다.</li> <li>- 이야기의 짜임을 생각하며 듣기</li> <li>•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li> <li>- 공통점은 석가가 소별왕처럼 속임수를 써서 미륵의 세상을 빼앗는다. 차이점은 주인공 이름이 다르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며, 석가가 잃어버린 해와 달을 찾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래 동화책, 녹음 자료</li> </ul>
정리	반응의 일화	평가하기 정리하기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표현한 것을 발표해 보자.</li> <li>- 잘된 점은 서로 칭찬하여 준다.</li> <li>•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해 보자.</li> <li>- 우리 신화를 알게 되어서 뜻 깊었다.</li> <li>- 우리나라의 다른 신화를 더 알고 싶다. 등</li> </ul>	

이 유형은 인지적, 정의적, 개인적으로 겪는 아이디어나 느낌, 연상 등에 관심을 두는 심미적 읽기를 권장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또한 이 유형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그들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유형을 적용할 때에는 텍스트 자체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구들과의 토론을 강조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반응의 심화’에서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에서는 가능한 다른 작품을 읽게 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저학년이 경우 그 이야기의 즐거움을 들려주고 어떤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신화를 지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체계가 잘 드러나 있다. 세상이 생겨나는 모습은 다른 민족의 창조 신화에 비해서 정태적으로 느껴지며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 하지만 이 신화에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을 아동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우리 신화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천

지왕본풀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교훈을 찾기 보다는 인상적인 부분을 찾거나, 재미있는 부분을 찾거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등의 작품 감상 활동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 비약이 심한 부분이거나 변형이 불가피한 부분은 개작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천지왕본풀이」 신화의 교수 학습 활용 방안을 반응 중심 학습 절차에 의해서 제시해 보았다.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학습자들 각자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반응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의를 통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나타내는 학습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구성하였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외에도 전래 동화 수업에 적합한 학습 모형은 여러 가지이다. 어떤 학습 모형을 이용하더라도 앞서 살핀 설화의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목표와 학습 절차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이 연구는 구비 전승되고 있는 「천지왕본풀이」의 채록본 8편과 필사본 1편을 대상으로 서사무가의 전승 양상, 구조적 특징과 의미, 이 신화에 내재된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천지왕본풀이」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를 살펴본 후 교육적 활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전승되는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 9편을 대상으로 삼아, 공통적인 서사단락을 찾고 원형을 추정해 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순차적 서사 구조에 따라 전 단락을 포괄하여 10단락으로 나누어지며, 내용의 첨가, 탈락, 의미의 변질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서사단락 뿐만 아니라 세부화소도 도치, 탈락, 첨가 되어 순차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 전승기반이 취약하다. 「기본형」은 8편 중 3편으로 모든 서사단락을 갖춘 유형이며, 「기본형」에서 <부친 탐색담>, <수명장자 징치담>이 탈락되면 「변이형Ⅰ」이 되고, <대별왕의 이승 정리담>이 첨가되면 「변이형Ⅱ」으로 본다. 서사단락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별왕이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채록본을 신화의 의미가 변질된 것으로 파악하여 「변이형Ⅲ」로 보았다. <대별왕의 이승 혼란 정리담>은 대별왕의 지혜와 인간됨, 영웅성을 드러내는 단락으로 재미가 더해지나 이 단락을 빼도 서사적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 기능 변질형은 소별왕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서사단락은 갖추었으나, 소별왕이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천지왕, 대별왕과 소별왕을 중심으로 한 순차 구조의 의미와 순환 구조를 살펴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천지개벽—천지왕 결연—천지왕 업적—부친 탐색—공적—경쟁—신직 획득’의 순차 구조를 가진다. 혼합되었던 천

지가 개벽되고 만물이 생겨나는 천지개벽담, 혼란한 세상을 정리해 줄 이세(二世)를 얻기 위한 천지왕의 결연담, 현실의 부정의 존재인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천지왕 업적담, 부친 탐색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내면에 잠재된 신성을 확인한다. 두 개씩 떠 있는 하늘의 해와 달을 커다란 활로 조정하는 공적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형제가 수수께끼 내기와 꽃 피우기 내기를 하는 경쟁담, 결국 속임수로 소별왕은 이승의 신이 되고 대별왕은 저승의 신이 되는 신직 획득담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순환 구조에서는 인물의 목적에 따라 천지왕,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나누어지나, 모두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 양상을 보이며 대별왕과 소별왕의 신성성을 증명해 준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각각 저승과 이승의 신으로 좌정하게 되기까지는 ‘시련’과 ‘극복’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미분적 상상과 순환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인의 존재 근원에 대한 원본 사고에 의한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를 전승해온 전승집단의 의식을 살펴 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신이 됨에 따라 각 공간의 질서가 잡히는 모습을 말해준다. 본토의 창세신화를 향유한 집단들은 이승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 서사무가를 향유한 집단들은 공간을 이승과 저승으로 분리하여 그 질서가 구현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이 신화는 곳거리에서 불리는 서사무가이므로 인간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승집단들은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의식을 지니고 곳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였다. 수명장자와 소별왕의 행동을 보면서 욕심을 경계하고 남을 배려하라는 전승집단의 소박한 도덕률을 살필 수 있었다.

제Ⅴ장에서는 무가교육의 필요성과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이 문학제재로서의 적합성과 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후 초등학교 수준에 알맞은 읽기 자료를 구안하고 문학작품으로서의 교수 학습 활용을 제시해 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이 세상의 시원(始原)을 알려주는 서사무가로 지금도 곳거

리에서 불리고 있어 이미 소멸되어 버린 본토의 창세신화와 달리 ‘살아있는 신화’로서의 가치가 큰 신화이다. 「천지왕본풀이」 신화 속에 내재된 조상들의 사상과 삶의 모습들은 교육적으로 수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학적인 재미 외에도 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학의 효용성도 갖추고 있는 귀중한 문학작품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한국 창세신화의 일부로 연구되었던 「천지왕본풀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며, 이 서무가를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읽기 자료와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반응 중심 학습 유형을 구체적인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검증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채록본>

- 문무병, 제주도 큰굿 자료, 제주 : 제주도 · 제주전통문화, 2001.  
\_\_\_\_\_,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제주 :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임석재,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비교민속학 7집, 비교민속학회, 199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 무가, 서울 : 역락, 2001.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서울 : 동문선, 199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서울 :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 신구문화사, 1980.

#### <필사본>

- 문창현(한자·한글표기), 문정본 구송, 풍속무음, 제주 :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94.

### 2. 단행본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서울 : 증명, 1997.  
\_\_\_\_\_, 제주 속담 총론, 서울 : 민속원, 2001.  
고재환, 제주 속담 사전, 서울 : 민속원, 2002.  
김무조, 한국 신화의 원형, 서울 : 정음문화사, 1988.  
김문태, 신화교육과 국어교과교육의 현장, 서울 : 보고사, 2004.  
김열규, 한그루 우주나무와 신화, 서울 : 세계사, 1990.  
\_\_\_\_\_,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서울 : 지식산업사, 2005  
김열규 외, 민담학 개론, 서울 : 일조각, 1982.  
김영일, 한국무속신화의 서사모형론, 서울 : 세종출판사, 1996.  
김익두, 한국 신화, 서울 : 한국출판사, 2005.  
김인회, 한국무속사상 연구, 서울 : 집문당, 1993.  
김인회, 한국인의 가치관—무속과 교육철학—, 경기 : KSI 한국학술정보, 2003.  
김장성, 세상이 생겨난 이야기, 서울 : 사계절출판사, 1998.

- 김재용 ·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서울 : 동아시아, 1999.
- 김종상, 우리의 신화 옛날 옛적에, 서울 : 지경사, 1990.
- \_\_\_\_\_, 새로 찾은 우리 신화, 서울 : 예림당, 1997.
-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서울 : 집문당, 1985.
- \_\_\_\_\_, 무속과 영의 세계, 서울 : 한울, 1993.
-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서울 : 시인사, 1988.
- \_\_\_\_\_, 한국 문화의 원본사고, 서울 : 민속원, 1997.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서울 : 길벗, 1994.
- 김화경, 애들아, 한국 신화 찾아가자!, 서울 : 오후세시북스, 2003.
- 권태효,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서울 : 지식산업사, 2005.
-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서울 : 교문사, 1993.
- 라이너 테츠너, 성금숙 역, 게르만 신화와 전설, 서울 : 범우사, 2002.
-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 민음사, 1993.
- 말리노우스키, 원시신화론, 서울 : 민속원, 2001.
- 멀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 학민사, 1983
- 문명식, <소별왕 대별왕> 한계레 옛 이야기, 서울 : 한겨레신문사, 1999.
- 박현국, 한국 공간 설화 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1995.
- 브루노 베텔하임, 김옥순·주옥 역, 옛 이야기의 매력 1·2, 서울 : 실천문화사, 1996.
- \_\_\_\_\_, 한국무가의 연구, 서울 : 문학사상사, 1992.
- 서대석, 한국의 신화 연구, 서울 : 집문당, 2001.
-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서울 : 집문당, 2002.
-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서울 : 현암사, 2003.
- 스티스 톰슨, 윤승준 · 최공식 공역, 설화학원론, 서울 : 계명문화사, 1992.
- 신동훈, 살아 있는 우리 신화, 서울 : 한계레신문사, 2004.
- 신헌재 외, 아동문학과 교육, 서울 : 박이정, 2006.
- 신화아카데미, 세계의 창조신화, 서울 : 동방미디어북스, 2001.
- 안진태, 신화학 강의, 서울 : 열린책들, 2001.
- 알폰소 오티즈, 무엇이 그들의 신화이고 전설인가, 서울 : 이가책, 1993.
- 에드워드 암스트롱 베넷, 김형섭 역, 한 권으로 읽는 용, 서울 : 푸른숲, 1997.
- 오경문,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긴 이야기, 서울 : 들창, 1999.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경기 : 한국학술정보, 2005.
- 왕빈, 신화학 입문 서울 : 금란출판사, 1980.
- 袁珂, 정석원 역, 중국의 고대신화, 서울 : 문예출판사, 1994.
- 이경덕, 대별왕 소별왕, 서울 : 함께 읽는 책, 2003.



- \_\_\_\_\_,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경기 : 사계절, 2006.
- 이은봉, 신화와 현실,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5.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서울 : 집문당, 2005,
- 이지영, 한국의 신화이야기, 서울: 사군자, 2003.
- 임재해, 한국 민속학과 현실인식, 서울 : 집문당, 1997.
- 장덕순, 설화문학해설, 서울 : 이우출판사, 1983.
- 장주근, 한국 민속학 개설(개정판), 서울 : 학연사, 1990.
- \_\_\_\_\_, 풀어쓴 한국의 신화, 서울 : 집문당, 1998.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 역락, 2001.
- 정원식, 지력과 정의의 교육, 서울 : 배영사, 1976.
- J.F. 비엘레인, 현준만역, 세계의 유사신화, 서울 : 1996.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서울 : 새문사, 1985.
- 조셉 캠벨, 이윤기역, 세계의 영웅신화, 서울 : 대원사, 1989.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 한겨레출판, 2006.
- 조홍윤, 한국 巫의 세계, 경기 : 한국학술정보, 2004.
- 좌혜경, 한국 · 제주 ·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서울 : 푸른 사상, 2000.
- \_\_\_\_\_, 남국의 민속, 서울 : 교학사, 1982.
-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 서울 : 민속원, 2003.
- 체렌소드눔, 이평래 역, 몽골 민간 신화, 서울 : 대원사, 2001.
- 최운식, 옛 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 서울 : 한울, 1992
- \_\_\_\_\_, 심청전 연구, 서울 : 집문당, 1982.
- \_\_\_\_\_, 민속적인 삶의 의미, 서울 : 한울, 1993.
- \_\_\_\_\_, 한국 고소설 연구, 서울 : 보고사, 1995.
- \_\_\_\_\_, 한국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서울 : 민속원, 2002.
- 최운식 · 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집문당, 1998.
- 최운식 외, 한국 민속학 개론, 서울 : 민속원, 1998.
-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 신화, 서울 : 여름언덕, 2004.
- 편해문, 어린이 민속과 놀이 문화, 서울 : 민속원, 2005.
- 하효길 외, 한국의 굿, 서울 : 민속원, 2003.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1·2 서울 : 동아 출판사, 1992.
- 한상수, 한국의 신화, 서울 : 문음사, 1987.
- 현길연, 제주도 이야기,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4.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 집문당, 1986.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 집문당, 2005.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 : 집문당, 1992.
- 황정현 외, 국어교육과 교육연극의 방법과 실제, 서울 : 박이정, 2004.

### 3. 논문

- 구영숙, “서사무가의 구조분석—그 문학사적 의의와 우주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호, 한국민속학회, 2006.
- 김기창, “국어과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 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기창, “무가교육론,” 교육한글 6회, 한글학회, 1993.
-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남연, “한국창세신화와 유형담의 전승과 변이—장자징치담과 천지결연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대성, “초등학교의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산문 제재의 교재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수중, “한국신화에 나타난 인간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한국 창세신화의 연구,” 인문과학연구 12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0.
- 김영숙,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성격화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영일, “한국창세신화의 비교연구—<천지왕본풀이>와 북미인디언의 ‘쌍둥이’영웅신화를 중심으로—,” 인문논집 10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은정, “한·일 창세신화 연구—제주도 지역 무가 신화와 일본 문헌 신화와의 비교·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인옥,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정경, “한국 창세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준기, “신모신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무속신화의 형식적 특징,” 한국문화연구 2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 김창진, “관념적 시공의 존재 양상 및 성격 고찰—초감제무가, 단군신화, 박혁거세 신화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6~7호, 국제어문연구회, 1986.
- 김현선, “제주도 지역 필사본 무가의 자료적 가치,” 고전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문학회, 1992.
- \_\_\_\_\_, “무속신화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인문과학 2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8.
- \_\_\_\_\_,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연구—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 \_\_\_\_\_, “<베포도엮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003.
- 김 현, “지라르의 눈으로 제주도 개벽신화읽기,”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서울 : 나남, 1989.
- 문무병, “제주도 생수설화와 물법신앙,” 탐라문화 12집, 탐라문화연구소, 1992.
- \_\_\_\_\_,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제주 토속신들의 역할과 기능,” 영주어문 2권, 영주어문학회, 2002.
- 박재형, “제주전래동화연구—제주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수명장자징치담과 천지왕의 결연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 \_\_\_\_\_, “한국창세서사시의 신화적 의미와 시대적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박희순, “교육연극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연구 방안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서대석,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과제—신화와 서사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4.
- 신원기, “설화(說話)의 교재화(教材化) 양상(樣相)에 대한 고찰—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신재은, “창세신화에 나타난 우주론의 체계와 현실인식,”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양영수,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8집, 제주도연구회, 1990.
- \_\_\_\_\_, “제주 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그리스 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호, 제주도연구회, 1997.

- \_\_\_\_\_, “제주신화의 중국신화의 비교연구,” 제주도연구 18집, 제주도연구회, 2000.
- 오정미, “무속신화의 재창조 방안 연구—창세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달선, “제주도 구비신화의 관계양상,” 대구어문논총 14집, 대구어문학회, 1996.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_\_\_\_\_, “한국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여대한국어문화연구소, 1998.
- 이재열, “창세신화 천지왕무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창윤, “북부형과 제주형 창세신화의 지역적 특성,”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서울 : 집문당, 2000.
- 이현숙, “바리공주 무가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임재해, “곳에 나타난 화해정신과 공생적 세계관,” 한국민속학 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 조현설, “한국창세신화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문제,” 한국어문학연구 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경희, “동화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최길성, “천지개벽과 종말론,” 비교민속학 10집, 비교민속학회, 1993.
- 최운식,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구조와 의미,” 한국 설화 연구, 서울 : 집문당, 1994.
- 최원오, “창세, 그리고 악의 출현과 공간 인식에 담긴 세계관—한국, 만주족, 아아누의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23집, 우리말글학회, 2001.
- 최진봉, “창세신화의 공간 연구,” 송실어문 19권, 송실어문학회, 2003.
- 한희정, “설화의 문학교육의 수용방안,”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허정식, “한국의 창세신화 연구—〈창세가〉와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허 춘, “제주도 무속신화영웅고,” 현용준박사화갑기념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 : 제주문화, 1992.
- 현원필,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 연구—제주서사무가〈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어진, “한국 창세신화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mission aspect, and the educational application of 「Cheonjiwangbonpuri」**

*Heo Yeong-Mi*

Major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 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Woon-Sik, Doctor of Literature

「Cheonjiwangbonpuri」 is ‘bonpuri’ that called together with 「Bepodoeopchim」 that is small order of 「Chogamje」 as one of big-exorcism in Cheju island. 「Cheonjiwangbonpuri」 is a narrative shamanic poetry that ‘Chunjiwang’ been process The heaven and earth that had mixed is detached and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 is a process of Creation that visit place and God gets married with wife of the land and then ‘Daebyeolwang’ and ‘Sobyelwang’ that bear is competing aganist each other.

This research is on searching complete victory aspect, structural characteristic meaning, complete victory mass of consciousness and found a

method of educational acceptance and application. The object of this research was the ninth book which was recorded, and the first book which was transcribed of 「Cheonjiwangbonpuri」.

If it see transmission aspect though data analysis, The all paragraphs of 「Cheonjiwangbonpuri」 is divided in 10 paragraphs by circulation structure and can be divided in 4 types by addition and falling off of contents or change in quality of meaning. The structure of 「fundamental form」 is very stable and composed of the third book of the ninth book and it had all narration paragraphs. If <Father searching story> and <Sumyongjangja correctable story> are qualified at the fundamental form, 「Transformational type I」 is made. If adjustment story in this world of 'Daebyeolwang' is added, 「Transformational Type II」 is made. Without relation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narration paragraph, Because book which was recorded is expose that do function positively is degenerated by meaning of myth, it can see as 「Transformational type III」.

In obtaining the position of goddess, 「CheonjiwangBonpuri」 have a serial structure of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Chunjiwang's marriage—Chunjiwang's works—Father searching—achievements—competation—obtating the position of goddess'. 「CheonjiwangBonpuri」 of contents are arranged that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that had mixed and creation story which weeding of a rice paddy makes and Chunjiwang's marriage for getting a baby that rule a confused world and Chungjiwang's works story that correct Sumyongjangja's existence of injustice and father searching story that 'Daebyeolwang' and 'Sobyelwang' are raised to the sky for finding their father. Moreover, it's contents are arranged that the works story that shoots sun and the moon of sky that rise two and

competitional story between brothers to take this world using riddle and flower arrangement and the obtaining story the position of goddess that 'Sobyelwang' got into god in this world and 'Daeyeolwang' god into god in the other world because of trick. Circulation structure that appear to 「CheonjiwangBonpuri」 can be gotten divided by circulation of ground and heaven and circulation of trial and conquest. Circulation of ground and heaven has meaning that certify that 'Daeyeolwang' and 'Sobyelwang' have a ability that can circulate 'the heavens→the earth→the heaven' are marvelous existence. It has a circulation structure which trial and conquest are changed repeatedly, until 'Daeyeolwang' and 'Sobyelwang' got into God of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in each other. Circulation structure is consisted by circulation accident and differential imagination. and arche pattern about Korean's existence.

The narrative shamanic poetry is reflected in form that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al group is various. The group that enjoy the creation of the world myth in native country is interested in this world but the other group that enjoy narrative shamanic poetry is interested process that order is embodied after separating space to this side of heaven and beyond. Because This myth is narrative shamanic poetry that is called in shaman song, it can read human central accident. Transmissional group has a critical accident for actuality and receive eternity through exorcism. We can show a simple morality of transmissional group that remain warn and consider about other person thought action of Sumyongjangja and 'Sobyelwang'.

「CheonjiwangBonpuri」 is myth that inform the origin in the world and a living myth that is called in shaman song. With consciousness of

transmissional group that examine in front, 「CheonjiwangBonpuri」 is thought as valuable literary productions that have literary efficiency that is required in education beside literary interes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gust, 2007